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 연구 센터

# Contents



##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



- 01 남원 /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 8
- 02 거창 /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 ... 18
- 03 옥천 / (주)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 26
- 04 울릉 / 노마도르 ..... 36



##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농촌



- 01 여주 / 늘푸른자연학교 ..... 48
- 02 제주 / 당오름작은도서관 ..... 60



## 활기를 찾아가는 농촌



- 01 서울 / 프루떼 ..... 70
- 02 장수 / 장수청년산사공 ..... 80
- 03 영월 / 발멍 ..... 88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IV

지속가능한 농촌



- 01 순천 / 문성마을 ..... 100
- 02 제주 /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 110

V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우수사례

- 01 농번기 아이돌봄방 ..... 118  
: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0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128  
: 제주 위대한백수
- 03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 136  
: 제천 덕산누리마을



## 발간사

우리나라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경제·사회 활동 위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교육·돌봄·보육 서비스를 스스로 마련하거나, 지역의 자원·자산을 이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농어촌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농촌 소멸 우려가 언급되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농어촌은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1·2·3·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2005~2024)은 대표적인 범부처 정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어촌’을 비전으로 하여 보건·의료·복지, 교육·문화, 정주여건, 경제활동 등 4대 부문을 축으로 다양한 사업에 2024년까지 5년간 총 51.1조 원 규모의 투용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자체 및 마을 공동체의 다양한 노력을 발굴하고, 농어촌에 대한 주민·국민의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3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는 농어촌 주민과 청년의 주체적인 활동에 기반을 둔 체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감도와 만족도가 높은 총 15개 사례를 선정·조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울릉도에서는 정착한 청년들이 울릉도를 소재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고, 순천시에서는 주민들이 지역 생산물인 콩을 활용한 사업화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수사례집은 이처럼 공공과 지역사회가 함께 살기 좋은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다양한 시도를 두루 담고 소개하여,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하나의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사업을 벌이는 한편, 주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동시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노력에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발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책 담당자나 주민 여러분들이 더 나은 지역을 꾸려가는 데 저희가 발굴한 이야기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연구진의 방문을 흔쾌히 허락해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

01 남원 /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02 거창 /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

03 옥천 / (주)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04 울릉 / 노마도르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CHAPTER

I

함께 만들어가는  
농촌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

01 **남원**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 '이음'으로 키워가는 공동체의 작은 변화들

-  **소재지** 전북 남원시 산내면 대정길 127
-  **단체명**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
-  **주요내용** 산내 지역을 중심으로 지리산권역에서 일어나는 지역 이슈에 기획과 참여, 자금 지원(연결), 소통과 네트워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여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키워나가는 사회적협동조합
-  **키워드** 공동체 활동 지원, 작은변화 지원, 이음/연결, 커뮤니티 공간 기반



## ② 실상사 귀농학교가 씨앗이 된 귀농·귀촌자들의 유입

1998년 남원시 산내의 오래된 절 실상사에 전국 최초 격의 귀농학교가 만들어졌다. 당시 IMF 사태가 터지고 실직자가 양산되던 분위기에서 농촌으로 사람들을 되돌려 농촌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취지였다. 그렇게 매년 30~5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산내의 귀농학교에 들어오면서 한두 명씩 정착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현재 산내면 인구 2,100여 명 중 500명 정도는 귀농·귀촌해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한다. 지리산이음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임현택 센터장도 산내에 들어온 지 12년차 되는 귀촌인이다.

귀농자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실상사에서 ‘한생명’이라고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네트워크 법인을 만들었다. 한생명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한생명은 ‘산내’라는 이름처럼 농사 여건이 좋지 못한 산 속의 땅에 자리한 귀농학교에서 가르친 생태농업을 하는 귀농자들의 농산물 유통 등을 도와주는 일도 했다. 산내면 지역에는 한생명 외에도 지리산 개발 이슈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생명연대, 마을에서 출발한 지리산마을교육공동체 등 지역 이슈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 활동 단위들이 다수 존재한다.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도 그중 하나이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면서 이음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돕는다. 협업할 수 있는 활동을 기획하고 제안하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꺼내놓고 소통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의 역할도 한다. 지역의 공동체 활동을 다양화하고 확장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외부 자원을 찾아 제안하고 연결하기도 한다.

산내에 들어온 귀농·귀촌인들이 공동체에 스며들면서 자연스레 지역의 여러 일들을 하게 되고 공동의 활동 경험을 쌓아왔다. 단순히 친밀한 이웃 문화를 넘어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이 만들어지고 변화가 낯설지 않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귀농학교는 없어졌지만 그동안 지역에 배어온 분위기 속에 귀농·귀촌인들의 발걸음은 계속 이어져왔다. 이후에 들어오는 젊은 귀농·귀촌인들은 생태적 가치를 지키면서 농촌에서 도시와 다른 삶의 방식을 모색할 가능성을 산내에서 발견하고 있다. 마을에 교육공동체 바탕이 쌓이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산내초와 산내중, 실상사작은학교 등을 찾아 이곳에 들어오

는 가구도 많아졌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들어온 사람들이 새로운 활동을 펼치면서 외부 사람들에게 더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드는 선순환 속에서 산내면은 약 15년 전부터 주민 2천 명이 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 ☉ 커뮤니티 문화공간 ‘마을카페 토닥’

지리산이음의 중심에서 활동을 이끌어온 임현택 센터장과 조양호 이사장, 오관영 전 이사장은 모두 이전에 도시에 살면서 시민사회 일을 했다. 십수 년 전부터 산내면을 오가며 활동하던 중 지리산 지역에서 구체적 마을을 근거지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데 마음이 모였다.

2012년 마침 매물로 나온 마을의 작은 술집을 인수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커뮤니티 공간을 구상하되 수익구조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안을 생각해냈다. 비용 마련을 위해서 마을출자 개념을 가져왔다. 주민들이 특별한 목적 없이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사소한 것이라도 주민들 사이에 정보가 오가고 같이 모임이나 공부도 하며 작게라도 문화행사가 열리는 그런 공간을 열겠다는 운영 방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출자를 받았다. 두어 달 동안 모금해서 절반은 주민들로부터 출자받고 절반은 임 센터장 등의 지인들로부터 지원받아 약 3천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했다.

그렇게 마을카페이자 커뮤니티 문화공간으로서 ‘마을카페 토닥’<sup>1)</sup>이 문을 열었다. 토닥은 주민들의 사랑방, 마을 아이들의 만화방, 무엇보다도 누구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기획해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때때로 영화관, 공연장, 강의실, 모임공간으로 운영되었다. 기획자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주민들의 이해에 기반한 자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지원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려고 했다. 토닥에서의 시간이 쌓이면서 주민들은 프로그램 참여자에서 기획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 2012년 6월 ‘지리산문화공간’으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을 등록했고, 명칭을 ‘토닥’으로 결정하고 정식 오픈하면서 카페 사업을 위해 11월에 ‘마을카페 토닥’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 더 많은 다양성이 연결되기를 희망하며 지리산 권으로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자 ‘사회적협동조합 지리산이음’을 설립했다. 2013년 12월 ‘지리산이음’으로 비영리 임의단체 설립을 등록했고, 2016년 6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행정자치부)를 받았다.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산내면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시도들이 논의되고 실험될 수 있었던 공간적 기반이었던 토닥은 현재는 마을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시즌 2를 고민하면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있다.

주민들을 위한 복합용도의 커뮤니티 문화공간 '마을카페 토닥'



## 🌱 문화×공동체: 선주민-이주민이 만들어가는 문화공동체 바이브

산내면은 다수의 귀농·귀촌인이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둘 정착한 이주민과 선주민<sup>2)</sup>이 분리된 채 살아가기보다는 서로 접점을 만들고 소통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까닭이다. 서로 세대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같이 어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온 주민들이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이해의 지점이 있어 선주민을 초대하기도 하고 소통하는 교집합을 만들려 한다. 산내면에 모인 사람들은 이웃과 공동체로 이음을 통해 '농촌이지만 심심하지 않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 한 가지로 산내면에는 10년 가까이 활동하고 있는 마을극단 '산내놀이단'이 있다. 시작한 이주민들이 건강기능식품 방문판매단의 공연에 흥겨워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본 이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하실만한 것을

2) 마을에 들어와 정착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귀농·귀촌인 내지 이주민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편의상 이렇게 칭한다.

해드리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나눴고, 이를 계기로 10여 명의 주민들을 배우로 모집하여 이듬해 산내겨울놀이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마당극을 준비해 올렸다. 판소리단, 농악단 등 주민들의 취미모임도 와서 같이 공연하고 재미를 위한 차력쇼도 했다. 마을방범대와 청년회, 부녀회 등 50~60명 되는 주민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 행사를 치렀는데, 다소 서툰 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만들어냈다'는 데 마을 전체가 열광했다고 한다. 이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시도한 극단 공연은 마을 전체에 소중한 경험이 되어 당초 1회 공연으로 계획했던 것을 매년 겨울마다 해오고 있다. 처음에는 초등학교 강당을 빌려 변변한 음향 장비 없이 공연했지만, 점차 극단 활동이 무르익으면서 인근 면 지역에 진출해 출장 공연하는 등 지역에서 입지가 생기고 음향, 조명 장비 등도 지원받게 되었다. 초기에는 춘향전, 흥부전과 같은 기성 극을 올렸지만 이제는 지역 어머님들의 삶을 소재로 한 극이나 환경 아동극과 같은 창작극도 만들어 공연한다.

산내 지역에서는 마을잡지도 만든다.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고,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마을에 살고계신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의 이야기를 귀농·귀촌인들에게 들려주는 매체가 있어야겠다는 고민에서 기획된 것이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의성 있는 일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 하자는 목적도 있었다. '우리 산내 정도 되면 마을신문이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마을부심' 같은 것도 있었다. 각기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편집위원 등으로 역할을 하는 형태라 수월한 작업은 아니었다. '산내마을신문'을 5년 동안 50회가량 발간하다가 일 년 정도 휴식기를 갖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고사리(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마을잡지를 만들고 있다.

### 지리산 산내 마을극단과 마을 소식지 '고사리'



## ② 마을에서 지역으로 이음: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작은변화' 지원

마을카페 토닥을 열고서는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지역의 여러 자원을 연결해 의미 있는 일들을 만들어보고자 했다. 산내면이나 남원시가 아니더라도 지리산권역 곳곳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면서 산내면의 사례를 더 키워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시민사회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임 센터장은 아름다운재단의 지원 활동 사례를 잘 알고 있었고 2014년 재단 공모사업(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2억 원을 지원받았다. 이 지원금을 원천으로 마을 자원을 연계하는 것뿐 아니라 마을 바깥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외부와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그 한 가지로 7박 8일 동안 먼저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이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들려주는 시골살이학교를 기획하여 도시민들을 초청했다. 기존 귀농학교는 주로 경제적 문제에 집중해 기술교육을 주로 제공하는데, 누군가가 산내로 귀농·귀촌을 고민하고 있다면 남원은 어떤 지역인지, 살려는 마을이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을지 실제적 생활의 측면에서 가능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도시민들은 막연히 핑크빛 농촌살이를 꿈꾸거나 실제 없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농촌살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시민사회 이슈를 넘어 지역의 변화를 풀어나가는 지역 거점이 필요하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아름다운재단이 지리산이음의 제안으로 지리산 권역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면서 변화의 스토리를 만들어보자는 데 뜻을 모았다. 지리산 권역은 전북(남원)과 전남(구례), 경남(하동, 산청, 함양) 등 서로 다른 시·도의 경계에 있지만 지리산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라 판단했다. 2018년부터 상근자 네 명에 대한 인건비를 재단에서 지원받아 '지리산 작은변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작은변화 지원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한 일은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지리산이음의 활동은 사람 지원, 활동 지원, 교육 지원이라는 세 축의 구조를 꾸준히 가져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 지원이다.<sup>3)</sup> 지원을 받도록 선정된 이에게는 정산 요구 없이 활동비를 지급한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희망자로부터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역 변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음에서 직접 여러 경로를 통해 찾는다. 이음이 직접 제안해서 사람을, 네트워크를 만들어간다. 농촌에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사람은 발견하는 것이기도, 키워가는 것이기도 하다. 사람 지원을 통해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는 새로운 움직임, 또 다른 작은 변화로 이어진다.

지원받은 활동가들이 지역의 변화를 위해 제안하는 구체적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개방된 형태로 공모를 통한 지원도 한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아<sup>4)</sup> 큰 효과를 의도하기보다는 작은 변화들의 의미 있는 축적을 기대한다. 지리산 각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경향성도 볼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그때그때 발생하는 이슈에 시기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한데 정규적으로 계획된 지원사업으로는 그러한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은변화 지원을 통해 유연하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 **마을, 지역에서 우리 사회로 이음: 지리산포럼**

큰 문제일수록 가장 작은 매듭부터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지리산이음의 관심은 마을, 권역을 넘어 더 큰 사회를 향해 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고민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나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는 ‘지리산포럼’으로 이어졌다. 유명인의 발표를 듣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시민사회 섹터 등 시각에서 사회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포럼을 구상했다.

2015년 ‘세상을 보는 색다른 100가지 생각’이라는 주제로 연 첫 번째 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여름 ‘지금, 다시 시작’을 주제로 9번째 포럼을 열었다. 사회혁신을 지향하는 지리산

3) 현재는 10명에게 매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4) 200만 원 규모의 사업을 30여 개 지원한다.

포럼을 10년 가까이 운영해오면서 포럼에 참여하거나 협업하는 기관들도 다양해졌다. 지난해에는 사회적경제진흥원, 노무현재단, 공공상생연대기금 등이 참여했고 국립공원과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 지리산포럼 개최



자료: 소셜임팩트뉴스(2023.9.4.) <https://www.socialimpact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123>

## 🌱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

현재 지리산이음이 활동하는 거점 공간은 2021년에 조성한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이다. 지리산이음과 작은변화지원센터의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워크숍, 포럼, 강연 등을 위해 100명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컨퍼런스홀, 비영리단체,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유오피스와 회의 공간이 있다. 지리산포럼도 이 공간을 중심으로 열린다.

그러나 종종 직원들이 사레처럼 건물부터 지은 것은 아니다. 초기 토닥을 운영할 때는 임 센터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카페 한켠에서 노트북을 가지고 일을 했다. 상근 직원이 늘어나면서부터는 사무 공간이 필요해 이때는 사무실을 작게 임대해서 일했다. 그러던 중 2017년 마을의 농협 창고가 공매에 나왔고 여기에 입찰참가하여 낙찰받았다(이 역시도 토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시도하게 된 것이다). 비영리조직에 대해 좋은 조건으로 신협에서 받은 대출로 부지를 구입하고, 시민자산화를 지원하는 행정안전부의 저리 대

출과 아름다운재단 기부를 통해 리모델링 비용을 마련했다. 지리산이음이 펼치는 일의 확장성에 대한 고민 속에서 작은변화지원센터 운영 이후 본격적인 커뮤니티 활동 공간에 대한 수요가 있어 ‘들썩’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에서 개최한 마을주민 워크숍, 공유오피스와 회의 공간



## 🌱 농촌의 힘: ‘이음’으로 만드는 건강한 공동체

토닥부터 작은변화베이스캠프 들썩을 열기까지 임 센터장은 산내에서 일하고 살아오면서, 산내에 오가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결국 농촌을 찾는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 서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건강한 공동체에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10년의 시간 동안 지리산이음은 함께 사는 사람들,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그려한 ‘관계’를 만들어왔다. 사람과 사람을 잇고, 마을과 지역을 잇고, 지역과 더 큰 사회를 이음으로써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면서 지역을, 스스로를 키워왔다.

최근에는 남원시의 관계인구 정책 논의 테이블에 참여하면서 관계인구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관계인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산내에 왕래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몇 가지 사업 아이디어도 모색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 사업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음이 앞으로 펼칠 관계인구 활동의 내용 역시도 건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이음’이 될 것이다.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 따뜻한 마음을 엮어가는 지역 서비스공동체

- 📍 **소재지** 경남 거창군 마리면 빼재로 267, 좋은아침농장
- 👥 **단체명**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
- 📄 **주요내용** 거창군 내 사회적 약자와 지역 서비스공동체 연결을 통해 지역 사회복 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통합에 기여, 지역서비스 공동체를 통해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통합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 **키워드** 사회적 농업, 지역 서비스공동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약계층 현황과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농촌의 취약계층은 46.2%, 도시의 취약계층은 24.2%로 도시와 비교해 농촌의 취약계층 비율이 약 두 배 높다. 취약계층 인구에서도 농촌 지역에는 노인(24.0%), 장애인(12.8%), 한부모가족(4.6%)의 취약계층 비율이 높으며 이들의 주관적 건강 수준과 삶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 지역이다. 거창군에는 경남 지역 최초의 사회적 농업 농장인 수승대 발효마을<sup>1)</sup>을 중심으로 활발한 사회적 농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본 고에서는 거창 수승대 발효마을의 협업농장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다 독립하여 지역 서비스공동체 협동조합을 설립한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을 찾아가, 이들이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활동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의 출발

거창사회적농업지역네트워크협동조합(이하 거사네 협동조합)은 거창 수승대 발효마을의 협업농장으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던 일부 농장주들이 의기투합하여, 2022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sup>2)</sup>에 선정되어 설립된 단체이다. 거사네 협동조합의 사회적 농업 활동은 '지역 서비스공동체형'으로,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가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1) 경남 거창군 위천면에 위치한 전통 장을 만드는 곳으로, 경남지역 최초의 사회적 농업의 농장이다. 2012년 결성된 수승대 발효마을은 2019년 경남지역 최초의 사회적 농장으로 지정되어, 콩을 재배하는 농가들과 죽염을 활용한 장을 생산하며 달너미 약초원 농장 등 다양한 품목과 분야에서 일하는 농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2022년 기준 22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거사네 협동조합은 거창군 내 발달장애 청소년과 저소득층 아동, 어르신들에게 통합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서비스공동체 연결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있는 비영리 일반협동조합이다.

거사네 협동조합은 2개의 사회적 농장(협업농장)과 지역 단체가 함께하고 있으며, 변화경 대표와 두 명의 농장주를 포함하여 총 7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변화경 대표와 전채완 이사는 좋은아침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향기소반농장의 정지윤 이사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합류하게 되었다. 일반조합원 3명은 거사네 협동조합의 활동에 공감하며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참여하고 있다. 마지막 1명은 중간지원 인력인 문정희 돌봄반장이다. 돌봄반장은 주로 사업활동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의 발굴과 지역서비스 제공 기관 및 업체를 선정하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조합원들 간 스스롭게 결합되어 있는 거사네 협동조합은 자주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사회적 농업과 치유농업, 체험농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농촌의 공존과 공생에 기여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거사네 협동조합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적 농업 활동은 크게 지역 서비스공동체 활동과 사회적 농장이다. 여타 지역 서비스공동체 단체는 지역사회와 연결한 복지 서비스 제공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사네 협동조합은 협업농장 형식으로 사회적 농장을 함께 운영하여 두 가지 성격의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는 것이 차별점이라 볼 수 있다.

## **찾아가는 서비스①: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를 선물하다**

농촌의 어르신들은 농사철이 되면 식사도 거르시면서 농사일에 몰두하시는 일이 허다하다. 평생을 즐기실 줄 모르신 채 생업에만 몰두하시고, 농사철이 지난 후에는 마을회관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시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좋은아침 농장의 전채완 이사는 농장 뒤편에 사시는 할머니를 보고 돌아가신 자신의 어머니처럼 느꼈다고 한다.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드리고 싶고 여가활동을 통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삶을 이끌어주고 싶었던 마음에 시작한 일이 바로 사회적 농업 활동이다.

거사네 협동조합에서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직접 찾아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거창군에서 치매안심마을로 선정된 5개 마을과 협동조합에서 마을 이장님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한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건강청 만들기와 벌레퇴치제 및 연고 만들기, 수박화채와 인절미 만들기, 대파마늘소금 만들기로 총 네 가지이다.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지역의 인재를 강사로 초빙하고 있으며, 매년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건강증진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르신들은 직접 만드신 결과물을 댁에 가져가실 수 있고 여러 사람과 함께한 활동과 추억으로 인해 즐거워하셨으며, 거사네 협동조합에서도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이 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찾아가는 주민 여가 프로그램**



수제 블루베리자두청만들기



유기농 마늘대파소금만들기

**🌿 찾아가는 서비스②: 주거환경을 개선하다**

또다른 찾아가는 서비스는 농촌 지역의 낡은 주거환경에서 거주하시며 삶의 질과 생활여건이 열악한 분들을 발굴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는 것이다. 돌봄반장이 마을 이장님들의 도움을 얻어 거창군 내 취약계층과 고령자, 저소득 아동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하면 지역 내 업체들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의 범위는 세탁 서비스, 청소 및 방역, 도배·장판, 시설보수 등이다. 주거환경 개선 서

비스를 위해 지역 업체인 참크리닝(세탁), 한일CLEAN환경(청소·방역), 삼성장식(도배·장판),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집수리)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22년에는 총 4가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올해는 대상자를 더 발굴하려 한다. 서비스를 받은 분들은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한 사연을 예로 들면, 거동이 불편하고 아픈 아내를 보살피고 있는 남편은 아내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신청했다. 곰팡이와 악취로 가득했던 공간은 도배·장판 교체와 청소 서비스로 쾌적하고 환해져 부부에게 작지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주었다.

#### 주거환경 개선 활동



개선 전



개선 후

### 🌱 **좋은아침 농장: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높인다**

거사네 협동조합의 협업농장인 좋은아침 농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적농업 활동을 지원한다. 농촌 지역 고령자 주민을 대상으로 소일거리를 참여하게 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돌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홀로 계시는 지역 어르신들은 좋은아침 농장에서 시간을 보내시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삶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좋은아침 농장과 함께하는 어르신들은 자소엽, 곱향 등의 약초와 허브 키우기, 향노화에 도움이 되는 마늘 등을 재배하고 농장 주변 산책과 텃밭 가꾸기, 건강관리 활동을 통해 삶에 활력을 높이고 있다.

좋은아침 농장은 현재 약 10명의 어르신과 장애인 청년 1명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농장에서 활동하는 기간은 3월에서 11월로 농작이 가능한 시기이다. 장애인 청년의 경우 농장 활동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활동에 익숙치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점차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쌓일수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자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

### 좋은아침 농장 활동



메리골드 수확



어르신 나들이

## 🌿 향기소반 농장: 향기테라피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치유하다

또다른 협업농장인 향기소반 농장은 허브를 재배하는 농장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보육원 등의 위탁복지시설의 아동, 학교밖 청소년이 함께하는 향기테라피 프로그램을 3월에서 11월 중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이 다양한 허브의 재배법을 알고 이를 활용한 차와 생활재 만들기 활동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기소반 농장의 향기테라피 프로그램은 특히 위탁보호시설 아동들의 상하고 닫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매우 소극적이며 거부감이 강한 상태로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꾸준한 활동 참여를 통해 해가 바뀌고 아이들의 표정에 웃음이 늘어나 “향기소반 농장 이사님처럼 사회복지사가 되

는 게 꿈이에요.”, “저는 커서 농장주가 될래요.”라고 말하기도 하며 꿈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에는 강사와 돌봄반장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등 정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 향기소반 농장 활동



캠핑



허브족욕

### 거사네 협동조합의 성장은 현재진행형

올해로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2년 차에 접어든 거사네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지역과 대상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중이며 그 성장은 현재진행형이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모니터링 일지를 작성하여 대상자의 삶의 질 변화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그 변화는 실로 놀랍고 따뜻하다. 거사네 협동조합의 모든 구성원들은 활동 대상자들에 지역서비스를 제공할 때 항상 ‘물적 지원’이 아닌 ‘마음 지원’으로 다가가고자 했으며, 그 결과 이들의 공동체 의식과 삶의 질이 이전보다 향상된 변화를 보여주었다.

사회적농업활성화 모니터링일지

항기소반농장			좋은아침농장				
일시	2023.7.1.	장소	항기소반농장	일시	2023.7.8.	장소	좋은아침농장
참석자	위탁보호시설 아동 5명, 선생님 1명	6명	참석자	월화마을 대상자 12명	12명		
모니터링 내용			모니터링 내용				
<p>상반기 마지막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아이들은 아쉬움을 많이 표현한다. ○○○는 “선생님 건강하세요.”라며 눈물을 보인다. 어린이의 상처가 아물어 가고 있는데 만남의 기간이 너무 짧고 다시 보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느낌에 눈물이 나올 것 같다. 아이들이 기간의 씬이 없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꾸준한 만남이 ‘사회적 농업 지원 활성화 사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보는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작년에 농장을 낫설어하고 익숙해지던 과정의 아이들이 이제는 마음을 열고 꿈을 이야기한다. 다시 만났을 때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정을 나눌 수 있는 더 따뜻한 마음이 자랐기를 기대해본다.</p>			<p>많은 어르신들이 좋은아침 농장을 오셨다. 준비운동을 가고 가베로 게임을 하는 어르신들은 많은 웃음으로 즐거움을 표현하셨다. 유기농마늘, 대파, 소금을 만들기 위해 파를 다듬었다. 메리골드도 수확했다. 프로그램 도우미를 하며 돈을 벌었다며 △는 어르신들께 아이스크림을 사서 나누어 주었다.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던 △가 누군가와 함께하고 나누고 스스로 벌은 돈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할 수 있다는 것에 뿌듯해하였고 어르신들은 △를 보며 대견해하는 따뜻한 마음이 피어나는 자리였다. 아이스크림이 하나 부족했는데 어르신 한 분이 나누어 먹자고 하시며 재미있는 모양의 아이스크림에 모두가 한 번 더 웃는다.</p>				

거사네 협동조합은 더 많은 지역민에게 더욱 알차고 보람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다. 2022년도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를 진행해 본 결과, 거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읍·면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와 거사네 협동조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2023년도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는 예산을 줄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찾아가는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거창군자원봉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 주민 여가프로그램의 경우, 향후 산골 작은 마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르신들이 즐기실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여 구상할 예정이다.

변화경 대표는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단체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조합원 모두 각자의 본업이 있어 사회적 농업 활동에만 집중하기는 어려우며 전문적인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과 협업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확대하기 위해 활동에 적합한 단체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 거사네 협동조합이 사회적 농장과 더불어 지역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하는 진정한 지역 서비스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문화를 매개로 주민 소통의 창을 마련하는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 📍 **소재지**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1길 10
- 👥 **단체명** (주)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
- 📖 **주요내용** 옥천군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농촌잡지 발행과 복합문화 공간 운영, 지역마을여행, 출판, 디자인사업 등을 통해 지역문화 활력도모
- 🔑 **키워드** 지역문화창작공간, 농촌잡지, 지역문화콘텐츠, 문화재생



충북 옥천은 인구 4만여 명이 사는 작은 농촌 지역이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과 독특한 역사, 문화적인 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옥천 내 5개 마을로 이루어진 옥천 구읍은 경부선이 개통되기 전 충북 옥천의 생활경제 중심이 되었던 곳이며, 시인 정지용의 고향이자 육영수 여사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다. 마을에는 지난 100여 년의 시간을 여행할 수 있는 풍경들이 옹기종기 자리하고 있다. 북쪽에는 벚꽃길 산책로인 교동저수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마을을 굽어보는 마성산은 대청호 오백리길 9구간으로 이어진다. 해질 무렵 마성산에서 보는 교동저수지는 황금 연못이 된다.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 1연 -

하지만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방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옥천은 올해 소멸 고위험지역에 진입했다고 한다. 지역 내 청년층 인구가 빠르게 유출되고 고령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토록 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지역인 옥천을, 사람들은 왜 떠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은 그 이유를 지역을 제대로 보게 하는 ‘창’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은 옥천의 풍부한 ‘문화’를 매개로 지역민이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지역 중심의 농촌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고래실은 순우리말로 ‘바닥이 깊고 물길이 좋아 기름진 논’을 의미하며, 옥천이라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이야기, 사람을 담은 콘텐츠 사업으로 지역 문화를 풍요롭게 가꾸어 나가겠다는 고래실만의 미션이 담겨있다. 지역이 가진 고민을 지역이 가진 문화로서 풀어가고자 하는 고래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의 시작

지역문화활력소 고래실의 뿌리는 옥천신문에 두고 있다. 옥천신문은 충북 옥천에 1989년 창간한 이래로 현재까지 풀뿌리 언론으로서 탄탄히 자리 잡고 있다. 옥천신문이 창간한 지 20여 년이 지났을 즈음, 신문사 내부에서 소외되고 있는 지역과 농촌의 문화를 기록하여 보존하는 콘텐츠의 개발과 기획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일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2016년 11월, 고래실의 전신인 '문화콘텐츠 사업단'이 옥천신문 산하에 조직되었고, 당시 대전의 문화 사업 회사에서 경영을 담당하던 이범석씨를 사업단 단장으로 초빙하였다. 2017년 2월, 사업단이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수료한 이후, 옥천신문에서 독립하여 이범석씨를 대표로 2017년 3월 주식회사 고래실을 창립하였다.

고래실이 독립적인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 옥천신문사에서 부국장을 맡고 있던 장재원 기자가 합류해 2017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고래실 편집국장을 담당하였고, 2019년에는 옥천신문사의 편집부장이었던 박누리 현 고래실 편집국장이 합류하게 되었다. 박누리 편집국장은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의 건강한 공론장을 형성해오던 옥천신문의 목소리가 점차 작아지기 시작할 때 즈음, 지역에 새로운 운동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옥천신문사의 문화콘텐츠 사업단의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고래실에 합류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래실은 지역 문화 사업과 관련한 훈련과 경험 등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고래실은 대표 아래로 편집국(기자 5명), 문화사업국(편집국 동시 관할), 제작국(디자이너 2명), 기획협력국(2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있으며, 총 10명의 직원이 고래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옥천', '기록옥천', '마실옥천', '디자인옥천' 네 가지 영역에서 문화콘텐츠 사업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옥천의 지역문화창작공간 둠방

문화옥천은 '둠방'이라는 지역문화창작공간을 거점으로 고래실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

동과 커피와 음료 판매, 전시와 공연, 모임과 행사 등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뚝방’이란 ‘논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웅덩이’를 뜻하는데, 지역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뚝방은 고래실이 창립한 지 한 달만인 2017년 4월에 개소하였는데, 고래실의 소셜미션인 ‘농촌 문화의 새로운 전형 개척’을 드러내고 지속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초기 사업 콘텐츠의 필요성에 의해 비교적 속도감 있게 추진된 첫 사업이다.

고래실이 법인 독립을 준비하면서 현재 뚝방 공간이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사무실 건물과 주변 골목은 현재보다 훨씬 낙후되고 어두운 분위기였다고 한다. 마침 사무실 공간을 찾던 고래실이 주변 골목 환경을 바꿔보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 공간을 조성해보기로 결심하여 건물 1층까지 임차하였고, 지금의 지역문화창작공간 뚝방을 개소하게 된 것이다. 골목 환경 개선을 위해 벽화를 그려 밝은 분위기로 전환하였고, 1년에 한 번씩 골목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뚝방 공간에서는 고래실과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 평상시에는 주민들을 위한 카페로 개방되어 있으며, 주민들의 문화 활동과 소모임 공간 또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필붓과 연필로 그림을 그리는 주민 모임인 ‘옥천에서 세밀화를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모임(옥세연)’에서 일주일에 한 번 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년 동안의 작품을 뚝방에 전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옥천 동화 읽는 어른 모임’을 위한 서기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모임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동화책 읽어주기 또는 그림자 인형극 등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활동 연습 공간 및 모임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외에 지역 여성들이 모여 진행하는 페미니즘 독서모임 장소로도 활용되거나 외부 민간 단체의 행사·활동 공간 등으로 활용된다. 뚝방을 소모임 공간으로 활용하는 연령층은 주로 성인들이며, 카페는 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뚝방에서 진행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인 ‘뚝방에 빠진 날’은 지역 주민들이 향유하는 문화예술행사이다. 전시와 공연, 강연, 모임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옥천 지역 문화예술인의 만남과 소통의 창이 되고 있다. 2019년부터는 2년간은 약 30여 차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22년 8월부터 재개되어 현재는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열린 뚝방에 빠진 날은 지역 특유의

느낌을 영화에 담아오고 있는 영화감독 '이경원 감독전-공간의 기억을 담다'와 뜨개질을 매개로 한 소통의 자리 '다함께 뜨개질', 환경보호를 환기시키는 체험프로그램과 강연으로 이루어진 '쓰레기 만나오는 세상을 빛다(천연비누 만들기, 제로웨이스트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옥천에서 둠병이 더욱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청소년 친화 공간이기 때문이다. 고래실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옥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둠병 공간을 자립 지원 카페로 활용하기로 했다. 매주 토요일마다 청소년들이 둠병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면서 창출한 판매 수익금 전액이 청소년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지금까지 연중 운영 중인 사업이다. 현재는 청소년 지원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들이 모여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 꾸꾸는 배낭'이 작년부터 자립 카페 운영을 전담하고 있으며, 고래실은 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역할과 둠병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둠병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지역 사회에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옥천교육지원청 교육도서관을 청소년 친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반영하거나, 옥천군 청소년수련관 1층에 에너지 충전소라는 학교 밖 청소년 운영 카페가 조성된 것 등이 그 예이다.



둠병 내부 공간



제 3회 금거북이길 골목축제



지역 청년 예술인 공연



동병에 빠진 날 26탄-플라워 캔들 원데이 클래스

## 🌱 옥천의 삶터와 사람들, 우리네의 이야기를 기록하다

기록옥천의 대표적인 사업은 옥천의 농촌 문화잡지인 '월간 옥이네'를 발행하는 것이다. 월간 옥이네의 이름은 옥천의 '비옥할 옥(沃)자'를 가져와 지어진 이름으로, 옥천 땅 위에 발붙이고 살며 지역을 일궈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월간지이다. 고래실이 옥이네를 창간할 시 세운 목표는 '역사에 남은 1%가 아니라 역사를 만든 99%의 사람들을 담자'이다. 즉, 한 마을의 역사와 함께 살아오신 할머니나 할아버지, 지역사회를 일구는 노동자, 지역에 자리 잡은 청년, 작은 학교의 어린이와 청소년, 농사짓는 농민과 같이 평범한 이웃들에게 질문을 건네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월간 옥이네는 크게 자치×자급×생태, 공간×공동체, 사람, 문화×역사 등 크게 4가지의 주제로 지면을 구성하여 해당 주제별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지역 농민의 입을 통해 농업의 가치를 전하거나 지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오래된 공간(가령 동네책방이나 문방구)과 지역을 지켜온 이웃의 이야기, 옥천의 문화와 역사가 담긴 현장 등을 잡지 한 권에 두루 담아 우리가 몰랐던 농촌을 발굴하고 기록한다. 마을에서 서로를 돌보고 자치(自治)하는 공동체, 자신의 자리에서 의미 있는 삶을 일궈가는 이웃, 오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찾아 전하고 때로는 옥천의 풍경과 사람을 담고 오래된 역사의 조각을 찾기도 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월간 옥이네는 2017년 7월 창간하여, 2023년 10월 기준 총 76호가 발행되었다. 발행 과정은 월초에 다음 달 잡지에 담을 콘텐츠를 기획하고, 둘째 주에서 셋째 주에 취재를 진행하며, 마지막 주부터 다음 달 첫 주에 걸친 마감 작업 사이클로 진행되고 있다. 월간 옥이네는 평범한 이웃들의 삶을 담는 것을 콘텐츠 발굴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할 경우 마을 이장이나 단체 회장보다는 평범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있다. 특집 콘텐츠의 경우, 시의성을 가진 사안을 다루거나 '우리밀' 등 농업·농촌과 관련한 주제, 또는 고래실 기자들이 지역에 관심 있는 주제를 특집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고래실은 친근하게 주민들과 어르신들께 안부를 먼저 물어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궁금해하기 때문에 충분한 라포(rapport)<sup>1)</sup>가 형성되어 주민들도 고래실에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한다.

#### 월간 옥이네



월간 옥이네를 통한 옥천 지역사회에 작지만 큰 변화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다. 월간 옥이네의 길고양이 보호 관련 보도(2020년 2월호 특집) 과정에서 만난 캣맘, 캣대디들의 요청으로 별도의 모임을 진행하는가 하면 둠벙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보호 캠페인 활동도 펼쳐졌다. 당시 옥천군의회에서 동물보호조례안을 만들고자 나선 의원과 인연이 닿아 옥천지역에 필요한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안하였고, 일부가 반영되어 옥천에 동물보호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한다.

이렇듯 월간 옥이네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지역의 가치를 찾아내고, 오늘 우리가 외

1) 라포(rapport)란 두 사람 사이의 공감적인 인간관계를 말하는 심리학 용어로, 대인관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두 사람 사이에 형성되는 공감적, 친밀한 감정이나 상호 간에 대한 이해를 지칭한다.

면하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불러내고 고민하게 한다. 평범하지만 뿌리 깊은 지역의 이야기는 옥이네와 옥이네의 독자들을 함께 성장시키고 있다. 옥이네의 기원이 되는 옥천의 삶이 계속되는 한, 월간 옥이네의 여정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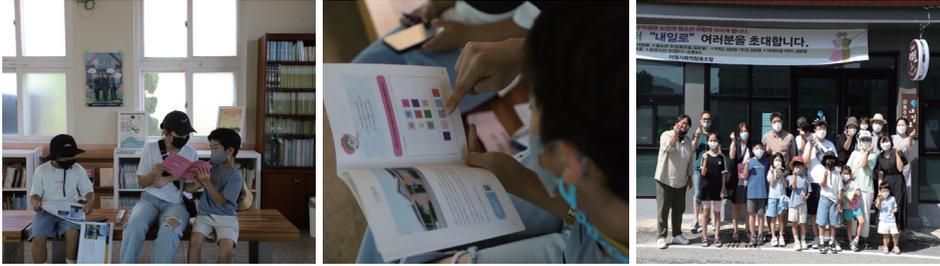
월간 옥이네 63호 中



 옥천 문화재생을 위한 고래실의 끝없는 노력

지역문화활력소 둠방 운영과 월간 옥이네 발행은 고래실의 대표적 문화콘텐츠 사업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이 담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마실옥천은 옥천이 지닌 가치와 매력, 사회·문화적 자원들을 지역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부하는 지역 마을여행 프로그램으로, 교과서가 담지 못한 지역 이야기를 여행으로 꾸렸다. 행복교육지구 사업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디자인옥천은 옥천이 가진 전통, 역사적 인물, 문화적 자원 등을 상징화하여 지역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목표로, 지역민을 포함한 각종 기관과 단체, 회사 등에 홍보물을 제작 대행하는 사업이며, 고래실의 실질적인 수익 기반을 담당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지역 출판 사업은 월간 옥이네와 더불어 기록옥천 사업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지역의 풍부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출판' 형태로 기록하고 있다. 옥천에서 국어 교사를 하셨던 선생님이 쓰신 정지용 시인 해설서를 책으로 출판하거나 옥천 사투리를 모으시는 선생님의 자료를 모아 출판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옥천군 사업인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고 있으며, 귀촌 희망자들에게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농촌에서 어떠한 문화 기획을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동네 주민들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라고 한다.

### 마을여행 - 다같이 이원 한바퀴



고래실이 옥천의 문화재생을 이끌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아직 성공적인 자립 구조를 갖지는 못하였다. 고래실의 주력 사업인 지역문화창작공간 동병의 운영과 월간 옥이네 발행 사업이 수익성이 높지 않고 해당 사업들로는 자립이 불가하여 많은 외주 및 용역 사업을 병행하고 있어 고래실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대해 고민이 크다고 한다. 또한 고래실이 창립한 지 어느덧 6년이 지나고 있으나, 보통 2~3년 주기로 청년 직원들이 고래실을 떠나고 있어 조직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큰 부담감과 고민을 안고 있다. 고래실은 젊은 기자들이 옥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나가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에서, 그리고 고래실에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을지 동기부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들의 여정과 고민, 노력이 담긴 이야기가 옥천주민과 더 많은 지역사회에 전달되어 옥천의 가치를 만날 수 있는 문화의 창이 건실히 세워지기를 기대하며, 옥천 문화와 농촌 문화를 기쁨지게 가꿔나가고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성장하여 고래실의 비전이 지속해나가기를 바라본다.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 불편할수록 아름다운 섬, 도시 청년들의 울릉도 정착기

- 📍 **소재지**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 2632
- 👥 **단체명** 노마도르
- 📄 **주요내용** 타지 청년들이 울릉도에 정착하여 관광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울릉도'를 콘텐츠로 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및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 '릉릉위크', '미스터리 울릉', 아티스트 레지던시 '망망대해' 등 로컬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 **키워드** 지역관광, 문화예술, 로컬 크리에이터, 청년창업



입시와 취업 등 무한경쟁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 한 언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대(20~60대)의 34.7%가, MZ세대(20, 30대)의 경우 44%가 ‘번아웃(Burnout)’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sup>1)</sup> 이러한 번아웃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와 전혀 다른 ‘농촌’으로 향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 ‘팜크닉’, ‘촌캉스’, ‘한 달 살기’ 등이 일상에서 벗어나 휴가·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 지자체에서도 ‘한 달 살기 지원사업’, ‘농가 체험’,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농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사실은 분명하다. 미디어의 영향과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졌다. ‘주말농장’, ‘5도 2촌’, ‘4도 3촌’ 등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최근 농촌은 버킷리스트 실현의 무대로 급부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도시민 중 31%가 5년 내 버킷리스트 실행을 준비 중이며, 이 중 45%는 농산어촌에서 그 꿈을 이루겠다고 응답했다. 농촌진흥청과 농촌자원개발연구소가 실시한 조사에서도 국민의 67%가 은퇴 후 농촌 생활을 희망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농촌에서의 전원생활을 꿈꾸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는 꿈을 미래로 미루지 않는다. 현재에 집중하고, 현실에서 실천한다. 복잡하고 바쁜 도시의 삶에 지친 청년 세대들은 대안적 삶을 위해 농촌으로의 이주를 택하고 있다. 이는 농사를 짓겠다는 생각보다는 도시에서의 치열한 삶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살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 노마도르



1) 동아일보 기사(2022.07.12.)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712/114400147/1>

## 대안적 삶, 아름다운 고립

노마도르의 시작도 그러했다. 서울에서의 직장생활에 번아웃이 온 박찬웅 대표는 어디론가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서울에서 벗어난 곳이면 어디든 괜찮을 것 같았다. 그러다 지인의 추천으로 '울릉도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당시에 경상북도와 한동대학교가 울릉도 폐교를 코워킹스페이스로 만들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먼저 운영했다. 그렇게 박찬웅 대표는 울릉도로 향하는 쾌속선에 몸을 실었다.

그에게도 울릉도는 미지의 세계였다. 지도상의 위치 정도만 알 뿐, 어떻게 가는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어떤 풍경을 가지고 있는지, 물가는 어떠한지, 어떤 교통수단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렇다고 미리 조사를 한다거나 일부러 찾아보지도 않았다. 남들의 시선으로 평가된 울릉도를 알고 가는 것보다 직접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다. 직접 마주한 울릉도는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그 자체였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훌륭한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이 있구나 생각했다. 그가 원하던 아름다운 고립이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은 명확하게 어떤 일정이 짜여진 것은 아니었다. 자유롭게 울릉도를 탐색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11명 중에는 한 장소에 머무르며 글을 쓰는 사람도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있었다. 박찬웅 대표는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계속 걸었다. 바다에 둘러싸인 섬길을 걷다가 바다에 들어가 수영도 하고, 산에 올라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비 오는 날에는 하염없이 비를 맞아보기도 했다. 육지에서, 도시에서는 하기 힘든 경험들을 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다 해보면서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을 받았다.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이 끝날 때 즈음, 울릉도에서의 한 달이 짧게 느껴졌다. 육지로 돌아가서도 그곳에서의 생활이 문득문득 생각이 남고, 무언가에 이끌리듯 울릉도를 계속 찾았다. 그러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 당시 만났던 지인과 울릉도에서 같이 뭔가 해보자 라고 뜻이 모아졌다. 마음이 통한 세 명이 모여 본격적으로 울릉도 정착을 위한 길을 모색했다.

입도 전부터 울릉살이라는 SNS를 운영하면서 울릉도를 콘텐츠로 하는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됐고, 서울에서의 소셜벤처 운영 경험과 창업교육 기업에서 재직했던 경력과 밑바탕이 되어 노마도르를 창업했다.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알고 지낸 지역 주민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경상북도 사업인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를 통해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 임대료 사용 등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은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정착 초기에 큰 도움이 됐다.

## 흘러들어왔다 나가는 바닷물이 되지 않기를

서울과 정반대인 이곳 울릉도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다. 지역은, 특히 울릉도는 인적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 곳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민들과 호흡하는 것이 관건이다. 비단 청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귀농 또는 귀촌을 했다가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유턴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다. 주된 이유로 경제적 이유와 지역민들의 텃세가 언급된다. 이에 대해 박찬웅 대표는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서울보다 부족한 것들이 많은 이곳에서 자신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서울이라고 텃세가 없겠는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면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아무런 노력 없이 자신이 지역에 와주었다는 생각만으로 환대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노마도르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도시와 다른 섬의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운이 좋게도 노마도르가 울릉도에 정착하려고 들어온 시기에 EBS 한국기행을 촬영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소개하고, 신원을 증명할 기회가 마련됐다. 음식을 만들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인사를 드리고, 일손을 돕고, 주민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행히 지역주민들의 반응이 호의적이었다. 기회가 따라주기도 했지만, 촬영이 끝난 후에도 지역민들과 신뢰를 쌓고자 꾸준히 노력했다. 노마도르를 창업하고 나서도 1년 정도는 지역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다. 지역에 살려고 왔다가 이내 떠나 버리고 마는 사람들을 겪다 보니 늘 새로운 사람에 경계심을 갖던 지역민들도 그제야 정을 주기 시작했다. 울릉도 곳곳의 식당 사장님들, 어촌계 어르신들, 마을 주민 한 분, 한 분 열

굴을 매일 마주하고, 인사를 건네는 나날이 많아지면서 깊어지는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지역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다. 그래서 지역민과의 호흡을 맞추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노마도르도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베이스캠프를 처음 운영하려고 할 때, 오해도 있었다. 노마도르는 자신들이 지역민들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소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듯 원주민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느낌이 들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은 경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이 낸 결론이었다. 노마도르는 일반적인 단기형 숙박이 아닌 2주에서 한 달 정도 거주하는 프로그램형 숙박이라는 점을 어필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했다. 이에 주민들도 수긍하게 되면서 상생을 이룰 수 있었다.

노마도르가 지역에 녹아들기 위해 공들인 노력의 결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와 울릉인페스타를 진행하면서 지역에 있는 레저업체와 연계해 해변 요가, 오징어배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앞으로 지역의 주민 사업체들과 협력해 정규 프로그램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 요가 프로그램



### 느슨한 연대

노마도르의 구성원은 박찬웅 대표를 포함해 총 5명이다. 서울 1명, 강릉 1명, 울릉도 3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명은 기획을 담당하고, 강릉에 거주하는 한 명

은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면서 함께 일을 한다. 다소 실험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노마도르는 살고 싶은 곳에 각자 살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고 싶은 생각이다. 개인에 대한 존중이 엿보였다. 실로 우려스러웠던 부분을 극복하고, 노마도르는 전국구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강릉의 더웨이브컴퍼니(TWC)와 더루트 컴퍼니, 서울 상수동에서 제비다방을 운영하는 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CTR), 경주의 마카모디, 목포의 스몰액션 등 뜻이 맞는 지역의 청년단체들과 미팅을 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가졌다.

‘릉릉위크’도 그 일환으로 실행되었던 이벤트 중 하나였다. ‘릉릉위크’는 강릉과 울릉의 끝 글자를 따온 것이며, 강릉과 울릉에서 보내는 일주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릉과 울릉 지역의 예술가, 로컬 창작자,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2021년 5월 14일 ~ 20일 기간에 1박 2일은 강릉에서, 4박 5일은 울릉에서 축제가 진행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1억여 원은 지원받았으며, 노마도르와 더웨이브컴퍼니(TWC), 문화지형연구소 씨티알(CTR)이 중심이 되어 행사를 이끌었다. 강릉의 소나무 숲속 ‘릉릉가든’과 울릉의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릉릉포트’가 무대가 되고, 뮤지션들이 공연을 펼쳤다. 그리고 강릉의 로컬크리에이터 5팀의 작품 전시와 노마도르가 운영하는 ‘망망대해 레지던시’를 연계해 각각 오픈 스튜디오, 워크샵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릉릉어드벤처’, ‘릉릉 플레이’등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하여 운영했으며, 릉릉위크에 참여하는 로컬 아티스트 및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창작물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릉릉위크 중 울릉도 여정은 SNS로 참여자를 미리 모집하여 원정대 형태로 진행했다. 70명 정도가 배를 타고 입도해 텐트촌을 차리고, 울릉도 전 지역에서 다양한 체험과 퍼레이드를 펼치기도 했다. ‘지역’이라는 하나의 공동된 가치를 함께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네트워크의 긍정적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다.

사실 인구가 적은 울릉도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기란 어려운 일이다. 도시에서는 커뮤니티를 통해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범주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울릉도는 아는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마도르는 여전히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공을 들인다. 이곳에서 인적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기에 ‘울릉소셜클럽’,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클럽’ 등

을 통해 건강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위기를 기회로, 우려를 기대로 바꾸는 네트워크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 릉릉위크



## 🌱 공백을 채우는 과정

서울은 인구 천만 도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자체다. 울릉도는 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지자체다. 넘치는 인프라를 갖춘 서울과 불편한 것, 부족한 것 투성이인 울릉도. 노마도르의 출발점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부터 시작됐다. 지역에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니즈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활동들을 다양한 형태로 확장시켜 나갔다.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도 그중 하나로서 2019년 1회를 시작으로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처음 영화제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 달 살기 당시 야외에서 영화를 보면 너무 멋진 것 같다는 단순한 생각 때문이었다.

울릉도에는 영화관이 없다. 영화관에 가려면 강릉이나 포항으로 나가야 한다. 무려 1박 2일이 걸리는 여정이다. 때마침 군청에서 함께 영화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이 들어왔다. 현포항 바닷가 한켠에 스크린을 세우고, 해가 뉘엿뉘엿해지니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외부에서 온 방문객들도 많지만 마을 주민들도 많이 찾아온다.

첫해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고, 지역에서도 반응이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다음 해 코로나로 지원이 끊기면서 영화제를 개최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문화 불모지인 울릉도에 꽃을 피운 영화제를 이대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노마도르는 고민 끝에 10월에 자비를 들여 소규모로 영화제를 개최했다. 그 뒤로도 매년 자체 비용을 들여 영화제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작년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영화제는 매년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공모를 통해 출품작을 선정한다. 우리나라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 울릉도의 정체성을 담아 ‘새로운 시작, 그리고 도전’이라는 주제로, 올해는 ‘환경’을 스페셜 키워드로 선정해 영화를 공모하고 있다. 작년 기준 200여 명 정도가 참석해 영화제를 빛냈으며, 지역에서의 반응 또한 여전히 매우 뜨겁다.

### 우리나라 가장 동쪽 영화제



또 다른 활동으로, 노마도르가 임대해 운영 중인 베이스캠프는 초기에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운영됐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소모되고 휘발되는 것에 늘 아쉬움이 남았다. 이에 노마도르는 우리나라 가장 동쪽 레지던시라는 컨셉을 잡고, 베이스캠프에 ‘망망대해’라는 새 이름을 붙여주었다. 2021년, 경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시작한 레지던시 첫 해, 시를 쓰는 작가와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입주했다. 그리고 2022년 세밀한 진경을 그리는 작가와 수묵과 추상을 그리는 작가, 이야기와 그림, 만화를 그리는 작가가 입주했다. 두 달간의 여정에 참여한 예술가들은 울릉도를 콘텐트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남겨진 결과물은 노마도르가 제품과 서비스로 재창조해 판매한다. 현재는 내부 사정으로 베이스캠프를 다시 일반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더 좋은 활용 방안이 있을지 계속 고민 중이다.

또, 노마도르는 2020년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비 2,200만 원을 지원받아 자체 관광 상품을 만들었다. 울릉도 방탈출 게임을 컨셉으로 하는 ‘미스터리 울릉’은 관음도와 저동, 현포, 태하에서 울릉도를 탐방하며, 아웃도어 추리게임을 하는 관광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현장 단서를 얻어 문제를 풀고, 사건의 전말을 밝혀내는 요원이 된다. 그리고 각 마을에서 저마다의 암호를 해독하고, QR코드에 답을 입력해 미션에 성공하면 리워드도 지급된다. 울릉도의 숨은 명소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 그 재미가 배가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극대화하고자 기획했다. 울릉도의 다채로운 매력을 노마도르만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모습이 인상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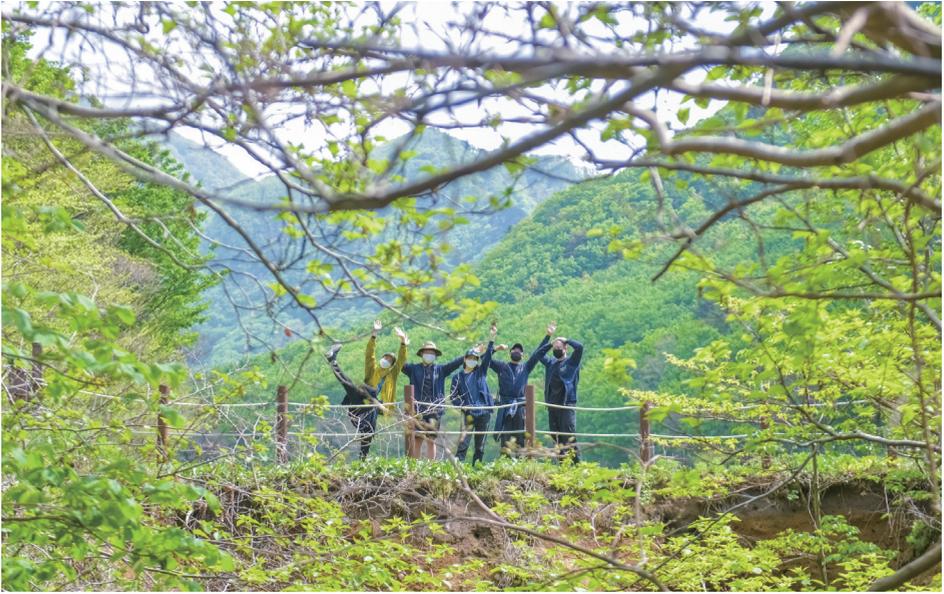
#### 미스터리울릉



앞으로 노마도르는 그 이름처럼 노마드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만들고자 계획 중이다. 현재 노마도르 2호점을 경주에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전국에 12곳을 만들어 1년 열두 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살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노마도르는 지역 이해도를 가장 핵심으로 두고 앞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노마도르스럽게 해석하고자 한다. 획일적이고, 판에 박힌 것들을 동일하게 찍어내기보다는 지역적인 콘텐츠를 만들어 지역을 알리는 것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울릉도에는 널리 알고 싶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숨은 명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다. 어느 지역에 가셔도 볼 수 있는 그런 흔한 콘텐츠가 아닌 울릉도에 대한 애정을 담은 특별한 지역 콘텐츠를 발굴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울릉도

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울릉도를 찾은 사람들이 다시 오고 싶은, 그리고 지역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다.



>> 01 여주 / 늘푸른자연학교

02 제주 / 당오름작은도서관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CHAPTER

II

꿈과 희망이 자라나는  
농촌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



## 아이들과 농촌의 동반성장을 꿈꾸는, 늘푸른자연학교

- 소재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성주로 946
- 단체명** 늘푸른자연학교
- 주요내용** 농촌유학생에게 마을, 자연과 함께하는 교육을 통해 공동체 의식과 애乡심을 갖게 하고, 마을 주민에게 문화교육을 제공하여 문화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키워드** 농촌유학, 가치교육, 마을교육공동체, 귀농귀촌, 지역활성화



농촌 인구 감소와 마을 공동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 지역은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이며, 학령인구의 감소는 폐교의 증가로 이어졌다. 학교에 다닐 아이가 없는 마을에 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가 사라지는 것은 마을에 애항심을 갖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이고, 마을 자체가 사라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버린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농촌유학'이 주목받고 있다.

농촌유학은 도시의 아이들이 일정 기간 부모 곁을 떠나 농촌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농촌유학센터에서 생활하면서 자연 속에서, 그리고 마을 속에서 살아보는 과정이다. 늘푸른자연학교의 아이들은 일과시간에는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지역학교로 등교하고, 하교 후 늘푸른자연학교의 방과 후 수업을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그리고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에 관한 경험도 쌓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도시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마음껏 뛰놀며, 자연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고, 마을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함으로써 진정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 이와 더불어 늘푸른자연학교는 농촌유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어르신에게 문화·교육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원주민과 이주민이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찾고자 한다.

## 늘푸른자연학교와 밀머리농촌유학센터

늘푸른자연학교의 효시는 대학교 연합 봉사동아리의 교육 기부 활동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동아리원과 교육 봉사에 뜻있는 여러 구성원이 모여 교육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농산어촌교육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원의 의결 과정을 거쳐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당진리 마을에 '밀머리농촌유학센터'를 조성하고, 2015년 폐교였던 점동면 당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늘푸른자연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다.

'늘푸른자연학교'는 넓은 의미로 농촌유학센터를 포함한 모든 활동과 공간을 말하며, 공간의 의미로서는 리모델링 된 당현분교를 지칭한다. 알록달록한 학교의 벽들은 농촌유학 아이들이 하나하나 색칠하며 다양한 색깔의 벽돌이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시설 내에는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있고, 댄스, 악기, 연극, 뮤지컬 수업 등이 진행되는 예체능실,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루어지는 여러 교실이 있다. 연극·뮤지컬 등의 수업을 통해 자기 표현능력과 공감능력을 키우고, 야외에서 동물매개치료와 원예 수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도시 생활에서 받은 상처와 틱장애 등 정서장애를 개선한다. 이처럼 늘푸른자연학교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더불어 나누는 협동의 가치를 실현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성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하고자 노력한다.

‘밀머리농촌유학센터’는 농촌유학생의 쉼터이자 공동체 생활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다. 전국 각지에서 온 아이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나눔과 같은 덕목을 몸소 배우고 익힌다. 또한 이곳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어 마을 어르신들이 담소를 나누러 놀러 오시기도 하고, 마을을 방문한 도시민에게 마을 생산물을 판매하는 장소 등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아울러 지역 아동을 위한 공간도 마련하여 농촌유학생과 지역 아동들이 함께 공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마을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늘푸른자연학교 전경



밀머리농촌유학센터

## 🌿 마을, 지역과 함께하는 체험활동

늘푸른자연학교는 지식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다각화된 경험 기반이 있어야 한다는 다중지능이론을 표방한다. 이에 따라 국영수 위주의 방과 후 수업이 아닌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30~40개 정도의 특기적성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목공, 요리, 택견, 연극, 자수, 악기 등의 일반 체험활동과 텃밭, 생태수업, 동물 치료 등의 자연활동, 그리고 봉산탈춤, 한글춤 수업, 우리말 놀이 등 여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수업도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위하여 지역 인재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봉산탈춤 수업의 경우 여주에 거주 중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봉산탈춤 이수자 장준석 선생을 섭외하여 아이들이 직접 봉산탈춤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여주 오학동의 사물놀이를 전공한 젊은 부부(김덕수 사물놀이패 직계 제자)와 점동면으로 이주한 이경화 안무가(국내 한국무용 치료 프로그램 1호 박사)가 각각 수업을 진행하고, 함께 공연을 하는 등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모든 과정은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하게 되며, 국영수 등의 수업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여주는 쌀과 도자기도 유명하지만, 세종대왕릉이 있어 훈민정음을 이용한 지역 브랜딩이 특징이다. 늘푸른자연학교는 이를 활용하여 여주의 특색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여주 벚꽃축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한글춤 공연을 선보이며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기도 했다. 이처럼 늘푸른자연학교는 아이들의 체험활동에 농촌, 자연 등과 관련된 일반 활동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주의 특색있는 문화유산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늘푸른자연학교 다양한 체험활동



벼베기



동물테라피



길놀이



진도복춤

늘푸른자연학교의 학생들로 구성된 '마을기자단'은 직접 마을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하고, 마을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이렇게 만들어진 책이 바로 '소곤소곤 밀머리마을 이야기책'이다. 아이들은 마을 유적지를 견학하거나, 마을에 오래 사신 어르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살고있는 마을과 역사에 대해 보고, 듣고, 경험한다. 또한 아이들은 마을 어르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자신들이 준비하고 진행했던 체험활동이나 축제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기도 하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는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각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에 대해 탐색할 기회를 가진다. 자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은 미래의 진로 탐색 및 결정에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배려와 존중 등의 가치에 대해 배우며 정신적 성장을 함께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나와 이웃, 그리고 마을, 더 나아가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자기 자신, 그리고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다.

마을기재단 취재활동



## 마을도 함께 성장하는 교육

과거 사람들이 북적했던 당진리 마을은 여느 농촌 마을이 그러하듯 자녀들이 도시로 출가하면서 남은 고령의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이러한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의 마을 주민을 위한 교육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고령 주민들은 자녀가 출가하면서 그러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늘푸른자연학교의 선생님들은 주민자치센터와 마을회관 등에서 고령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전자기기가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은 컴퓨터 수업을 통해 컴퓨터 활용 방법에 관한 기초를 배운다. 강좌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강의를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으로 먼 타지의 자식,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는 법, 사진으로 달력을 만드는 수업 등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마을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을회관 등에서 건강댄스 수업을 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늘푸른자연학교의 방과 후 수업에 마을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빵, 택견 수업 등을 개설하여 마을 어르신과 농촌 유학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 마을주민교육



댄스



제빵

마을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의도는 외지인(농촌유학센터 및 학생 등)이 마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융화시키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교장선생님의 생각 때문이다. 이를 위해 늘푸른자연학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마을에 활기가 돌고 긍정적 변화가 생겼다. 기존의 지역민은 늘푸른자연학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소비하는 컨슈머였으나, 최근 학교에 재능기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늘푸른자연학교에서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듀서 역할까지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프로슈머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마을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마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 배움을 뽐내는 시끌벅적한 마을 잔치

늘푸른자연학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을 기반으로 한 '너나들이 큰잔치'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너나들이는 '너나 나나 서로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를 의미하는 순우리말로,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이다. 이 축제는 늘푸른자연학교 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축제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지역민,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모든 사람이 참여한다.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노래자랑, 지역 어린이·청소년의 노래·춤 공연, 동아리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이 구성되며, 늘푸른자연

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 수업에서 배운 봉산탈춤, 한글춤 등으로 무대를 꾸민다. 축제를 통해 다양한 문화공연이 선보여지며, 지역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들을 타지인에게 판매·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하는 축제로, 세종실록 필사와 소원쓰기, 순우리말 배우기, 목판본 인쇄, 도예물레 체험, 연 만들기, 전래놀이 등 여주의 다양한 문화와 전통 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축제 준비 과정에서 아이들이 먹거리, 배울거리, 놀거리 등 다양한 부스 운영과 홍보 등 기획부터 진행까지 직접 실행하게 함으로써 사고력과 추진력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천택전 전수관의 전통무예 택견시범, 삼합리 달기머리 놀이패의 사물놀이, 점동주민자치센터 우금 악단의 공연, 청안 늘푸른 청춘대학의 실버체조 등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인력풀이 모두 함께 협동하여 축제를 이끌었다. 이에 점동면 주민 수 4,500명보다 많은 4,800여 명의 사람들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축제를 이룰 수 있었다.

늘푸른자연학교가 주도하는 또 다른 행사로 ‘밀당잔치’도 있다. 여기서 밀당은 ‘밀머리 당진리 마을’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서로 밀어주고 당겨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 행사에서는 당진리 마을의 전통 놀이 중 하나인 용줄다리기 행사와 결혼한지 50년이 된 마을 잉꼬부부의 리마인딩 전통 혼례식이 있었고, 잔치의 축하공연을 위해 졸업생으로 구성된 팀이 화관무 공연을 하기도 했다. 늘푸른자연학교 아이들은 마을 구성원으로서 행사에 참여하고 전통 혼례를 보고 축하하면서 도시에서 느껴보지 못한 감동과 마을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낀다. 이처럼 늘푸른자연학교의 활동은 교내 행사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즐거울 수 있는, 나아가 지역이 함께할 수 있는 축제로서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속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마을 전체가 시골벽적 활기가 돌아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너나들이큰잔치



### 밀당잔치



## 🌱 마을의 행복을 실천하는 학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늘푸른자연학교는 이 속담에서 마을과 교육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고, 이에 농촌 지역의 아동 교육을 위해서는 사라져가는 마을을 살리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늘푸른자연학교와 함께 활동하는 당진리 마을의 밀당청년단은 어르신들이 하기 어려운 간단한 집수리부터 사소한 민원까지 마을 전반에 관한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녀 보니 약을 먹기 위해 끼니를 대충 때우는 어르신, 요양보호사가 오지 않는 주말에는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도 있었다. 게다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주민들 간 교류가 줄어 외롭게 지내는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당진리 마을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활기를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이에 건강한 재료로 빵을 만들어 어르신들께 직접 가져다드리면서 안부와 건강을 확인하는 사업을 기획했다. 밀당청년단이 직접 만든 빵을 집집마다 방문하여 빵을 전해드리고 안부를 확인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했다. 어르신이 집에 계시지 않을 때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마을 청년들과 담소를 나누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마을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하면서 세대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늘푸른자연학교의 마을 주민 간 소통을 극대화하는 여러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표는 마을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촌 마을이 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늘푸른자연학교는 아이들의 행복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마을행복 삶의 질 목표>를 수립했다. 가장 먼저 세웠던 목표는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마을행복 문화공동체’이며, 단계적으로 ‘마을행복 경제공동체’, ‘마을행복 복지공동체’, ‘마을행복 자치공동체’ 목표를 수립했다. 마을 행복을 위한 문화공동체는 마을에 문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경제공동체는 마을의 생산물 판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복지공동체는 가구마다 안부와 건강을 확인함으로써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목표는 현재 네개 단계로, 단계별로 목표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쌓아가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마을이 자립할 수 있는 자치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 아동 교육 및 마을 활성화에 실질적 기여

당진리 마을로 농촌유학을 오는 학생은 점동초등학교로 배정된다. 현재 거주지가 센터로 등록된 학생은 약 60명 정도로 학교 통폐합 기준과 유사한 수치다. 이 학생들이 전부 점동초등학교로 배정되니 소규모학교이던 점동초등학교의 인원이 기존보다 두 배가량 증가(현원 136명)했다.

늘푸른자연학교가 개교한 이후 귀촌하는 도시민도 증가했다. 농촌유학을 끝낸 졸업생 중 34%가 부모님을 설득하여 여주시로 귀촌하였으며, 사정상 가족이 다 함께 귀촌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여주자연농고의 기숙학교 등 여주 소재의 학교에 진학했다. 늘푸른자연학교 졸업생 중 상당수가 여주의 시골 마을에서의 생활에 좋은 인상을 받고 다시 여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다. 함께 귀촌한 학부모 중 일부는 마을 사무국장, 밀당청년단으로 활동하며 마을 정비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성인인 된 이후에도 학교와 마을에 찾아와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청년 인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농촌유학이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늘푸른자연학교의 선한 영향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월평균 39회에 이르는 무상 방과 후 수업을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수도권 일대 교육소외지역 농촌 학교에 재능기부를 통한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방과후학교 대상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폐교인 당현분교를 리모델링하여 농촌유학과 주민 서비스공간, 마을축제장 등으로 활용하면서 지역민에게 소통공간을 제공하여 2018년 농촌지역 빈집 및 유휴시설 활용 우수사례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늘푸른자연학교가 추구하는 농촌유학 및 교육철학을 통해 마을활성화와 농촌살리기의 가능성을 보았다. 늘푸른자연학교에서 목표하는 “마을행복 자치공동체”를 이룰 수 있길 기원하며, 여주뿐만 아니라 많은 타 농촌유학센터와의 교류를 통해 당진리 마을의 긍정적 변화가 농어촌지역 전반으로 확대되길 바란다.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 사람과 책이 모이는 문화사랑방, 당오름작은도서관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중산간동로 2210
-  **단체명** 당오름작은도서관
-  **주요내용** 마을의 유일한 문화공간으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에 기여
-  **키워드** 작은도서관, 문화공간, 문화예술프로그램



오늘날의 도서관은 단순히 책만 읽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복합적인 문화시설로 거듭나며 점점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찾는 추세다. 쉽게 말해 도서관은 책을 빌려 보던 따분한 공간에서 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여러 사람이 교류하는 즐거운 문화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이 변화의 열풍 가운데 서 있다. 일반적인 공공도서관에 비해 규모는 협소해도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은 일상적으로 책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다. 특히 문화 향유 인프라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농촌에서 작은도서관의 존재는 더 큰 의미를 가진다.

제주 구좌읍 송당리 역시 열악한 문화 인프라를 가진 농촌 마을이었다. 그나마 있는 도서관도 세화리에 위치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인 동녘도서관뿐이었다. 세화리는 송당리로부터 차로 30분을 달려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곳이었다. 산간지부터 바닷가까지 마을이 이어져 있는 제주 지역 특성상 주요 인프라와 시설이 바닷가 인접 지역에 밀집할 수밖에 없었다. 구좌읍 정 가운데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신화와 오름의 고장'이라 불리던 송당리였지만, 주민들의 문화생활 갈증은 나날이 심화되었다. 그런 송당리에 2017년 작은도서관이 개관했다. 농촌지역의 문화 빈곤을 해소하는 소중한 문화사랑방, 당오름작은도서관을 소개한다.

## 유일한 문화공간, 소중하게 관리하는 송당리 주민들

구좌읍 송당리에 자리한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지난 2017년 4월에 문을 열었다. 올해로 개관 7년째를 맞이했다. 당오름작은도서관 개관 계기는 2017년 제주시에서 진행한 SOC 사업이었다. SOC 사업을 통해 국비와 지방비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고, 이 예산으로 마을회관 건물 2층을 증축해 작지만 소중한 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러나 당오름작은도서관 개관의 진짜 주역은 송당리의 주민들이었다. 2014년 송당리에 학교 살리기 빌라가 생기면서 송당초 학생이 30명에서 60명 이상으로 늘어났다. 송당리로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여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마을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다. 마침 마을회관 건물에 유휴공간이 생겼고 마을회의 도움

을 받아 마을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당오름작은도서관에 들어서면 입구에서부터 아늑한 책 향기와 따뜻한 원목 가구, 그리고 민선녀 사서가 주민들을 반긴다. 도서관이 개관했을 때부터 함께한 그녀는 매년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 장서, 시설 관리까지 도서관 살림살이를 도맡고 있다. 도서 구입을 비롯한 기본적인 도서관의 운영 비용은 매년 SOC 사업으로 지원받는 2천만 원으로 충당하는 중이다. 그녀는 마을에서 유일한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 장서 관리에 정성을 다하고 있다. 처음 개관할 때는 기증받은 도서들로 책장을 겨우 채워두었지만, 지금은 매년 주민 수요를 조사해 새 책을 책장 가득 구비하고 있다. 신청자 대부분이 독서에 관심 많은 주민이기에 그렇지 않은 주민도 흥미롭게 볼 수 있는 책 또한 다양하게 구비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처럼 그녀는 세심하면서도 애정 가득한 손길로 당오름작은도서관을 관리하고 있다. 그녀의 관리 속에서 현재는 약 6,000개의 다양한 장서가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

당오름작은도서관 전경



## 🌱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문화 공간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송당리의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작은도서관협회,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문화중개소 등 지역단체 공모사업과 협업해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문화 프로그램 기획 시 가장 중시하는 건 주민 의견이

다. 가능하면 주민 모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진행한 프로그램 중 반응이 좋았던 것을 준비한다. 덕분에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도 생겼다. 주로 도자기, 요리, 미술 프로그램같이 간단하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도 항상 도서관이 함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화의 고장’ 송당리에는 분향당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1년에 4번 당제가 진행된다.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송당리에서 열리는 마불림제 행사에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이주민과 기존 주민이 자연스럽게 마주하고 어울릴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한다.

가장 정성껏 준비하는 프로그램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송당리에서 학교를 제외한 유일한 문화공간이자 학습공간이기에 주말이나 방학 기간 어린이 이용객이 많다. 송당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다흔디배움학교’ 특화 프로그램 덕분에 평일에는 학교에서도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주말에는 도서관만이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어린이 전용 프로그램을 구성 중이다. 가장 최근에는 제주문화중개소와 함께 ‘어린이 고민 상담소 옆 토론공작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책의 내용을 주제로 팀을 이루어 토론을 해보는 시간이었다. 이 밖에도 지난 여름 방학에는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지원을 받아 ‘과학놀이터’와 수눔음 운영 ‘놀이 체육’ 수업도 진행하며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더했다. 이 밖에도 지난 여름 방학에는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지원을 받아 진행한 ‘과학놀이터’와 작은도서관 옆 수눔음 공간을 빌려 진행한 ‘놀이 체육’ 수업으로 프로그램에 다양성을 더했다.



토론공작소 활동



놀이 체육 활동

## ☺ 송당리 어르신들이 난생처음 경험해 본 문화생활의 황금기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지역 여성과 노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마을의 남녀노소가 함께 하는 도서관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마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예 프로그램 '삼춘서예'도 그 일환이었다.

4년째 진행 중인 서예 프로그램은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송당리 어르신들에게 작은 성취감과 행복을 느끼게 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반신반의했지만, 열정적인 참여도에 진행 인원들도 놀랐다고 한다. 오히려 아이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삼춘서예 프로그램 2년차때 저희가 전시회를 열었어요. 마을회관 1층에서 작은도서관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어느 할아버님이 전시회 기간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작품 앞에서 계시는 거예요, 본인 작품을 보시는 그 뒷모습을 보는 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 민선녀 사서 인터뷰 중 -

실제로 민선녀 사서는 삼춘서예 프로그램 2년 차에 진행한 전시회를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도서관 아래 1층에서 작품 전시회를 했는데, 어느 할아버님이 전시회 기간동안 매일 자신의 서예 작품을 구경했다는 것이다. 평생 그런 경험을 해본 적 없는 어르신에게 당오름작은도서관은 그야말로 문화생활의 황금기를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삼춘서예 활동



작품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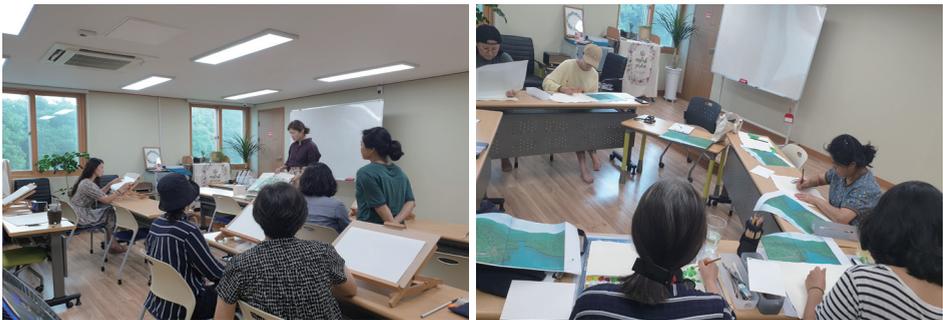
## ② 문화사랑방 안에서 피어난 미술 특화 도서관의 가능성

성인 대상 미술 특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 당오름작은도서관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 프로그램인 그림그리기 수업이 그 주인공이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 덕분에 당오름작은도서관이 개관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8년째 꾸준히 이어지는 중이다.

도서관이 생기며 마을주민들은 서로 교류할 공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 안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꾸리기 시작했다. 2022년 만들어진 그림 동아리 ‘송그림’이 대표적인 주민 모임이다. 도서관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시작한 그림 그리기 프로그램의 장기 수강생들이 프로그램 시간 외에도 서로 모여 그림을 그리고자 만든 단체다. 현재는 주민 8명이 매주 그림그리기 활동을 하고 있다.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이들이 사용할 장소를 제공하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주민들이 만나 교류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쌓는 것을 적극 장려하는 덕분에 책을 빌려주는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사랑방의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녀 사서는 주민들의 관심과 열정을 토대로 미술에 특화된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제주의 여러 책방이 책방 주인의 큐레이션이나 책방 컨셉에 따라 시, 그림, 책 등 특정 주제가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발전 중이다.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직접 만든 동아리 ‘송그림’을 중심으로 미술이라는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중이다.

그림 동아리 '송그림'



## 🌱 발전하는 도서관, 풍요로워지는 송당리

물론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과정에 몇 가지 아쉬움도 있었다. 먼저 프로그램 강사를 초청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아쉬움이다. 초창기 당오름작은도서관은 외진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강사들이 쉽게 방문을 결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주기적으로 오는 강사들도 생겨서 조금 나아진 상황이다. 마을주민의 재능 기부로 프로그램을 채워나가기도 한다. 영어 프로그램, 쿼트 프로그램 등 역량 있는 마을주민의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인기가 많다.

다음으로는 프로그램 수강인원 모집이다. 당오름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하지만 도서관 개관을 물심양면 도운 마을회 회원들에겐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도서관 개관 당시 제주시에서도 보조금을 받았지만, 송당리 마을회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그러나 정작 지원해 준 마을회 회원들은 생업이 바빠 도서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게다가 프로그램 운영 초기에는 도서관 게시판 공고 외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로 인원을 모집해서 SNS에 익숙한 주민만 신청했다. 그렇지 않은 주민이 더 많았기에 초창기에는 외지 사람들만 와서 이용한다는 쓴소리도 들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마을 도서관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 송당리 주민에게 먼저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미술, 공예 수업 등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부녀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모집하고 있으며 어린이 프로그램은 송당초 어린이를 우선해서 받고 있다. 모집인원이 남았을 때 구좌읍으로 범위를 넓혀 신청을 받는다. 이외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다는 점, 다른 지역민과의 교류를 위해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 등 마을과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지금도 많은 주제가 논의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중이다.

## 🌱 당오름작은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도서관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운영자, 도서관에서 교류하며 마을 공동체를 돈독하게 만드는 주민들, 농촌 문화 갈등 해결을 위해 선뜻 먼 걸음을 하는 강사들까지, 당오름작은도

서관은 그 구성원과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랑방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중이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은 평균 0.92명이다.<sup>1)</sup> 도내 작은도서관의 실질적인 직원 및 자원봉사자 수도 상근직이 1명 내외다. 시간제 및 비상근 자원봉사자 등이 간간히 일손을 도울 뿐이다. 이들에게 제공되는 인건비는 1년에 1,600만 원 수준으로 흔히 말하는 ‘열정페이’에도 한참 못 미친다. 당오름작은도서관 역시 도서관 운영 인원은 민선녀 사서 한 명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운영 인력 및 운영비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나 작은도서관은 관리 인력의 역량이 도서관 운영 성과에 큰 영향이 미친다. 당오름작은도서관에도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면 마을에 건강한 활기를 더하고 지역사회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 2022년 전국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참조

>>

01 서울 / 프루테

02 장수 / 장수청년산사공

03 영월 / 발명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CHAPTER

III

활기를 찾아가는  
농촌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



## 농촌을 체험하는 새로운 형태, 팜크닉(Farm+Picnic) 농장으로의 여행

- 📍 **소재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85
- 👥 **단체명** 프루떼(Fruitte)
- 📖 **주요내용** 전국 중소 농가과 함께 팜큐레이터가 만든 프라이빗한 팜크닉 프로그램을 도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팜크닉 플랫폼
- 🔍 **키워드** 팜크닉, 팜큐레이터, 농장 체험, 6차산업



## 🌿 농촌관광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다

유래없는 코로나19 확산은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외부 활동과 사회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국내외 관광 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농촌관광 또한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었다. 기업, 학교 등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농업 체험활동과 먹거리 관광이 주를 이루던 기존 농촌관광은 잠정 휴업 상황을 맞게 되었다<sup>1)</sup>. 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개별적 농촌 체험 프로그램은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

농장(Farm)과 소풍(Picnic)을 합성한 용어인 ‘팜크닉’을 사업 모델로 한 프루떼는 지난 2020년에 만들어진 농촌 관광 스타트업이다. 2019년부터 법인화 및 사업화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니 코로나19 시기에 딱 맞물려 창업한 셈이다. 2022년 말 기준 전국에 농촌체험휴양마을만 1,100여 개가 넘고, 관광농원, 개인 체험농장 등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이미 레드오션으로 알려진 농촌 관광 분야에서 이들은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까?

프루떼 홍인기 대표는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10년 넘게 일하던 사람이다. 그런 그가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과정에 입학한 해가 2019년이다. 필수적으로 창업을 해야 하는 과정이었고, 오랜 기간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시작한 일이라 배수의 진을 치고 빠르게 창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가 당시 관심을 가진 영역은 지역 불균형 문제였는데, 기회의 평등성, 사업의 확장성 등이 농촌 지역에서도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사업 모델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특히 그는 농가와 도시민을 연결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했다. 원래 여행을 좋아하던 터라 초기에는 여행 관련 콘텐츠를 기획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사업 모델은 마을기업과 연계한 농촌체험 플랫폼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사결정 및 협의가 용이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사업 초기부터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 개별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 나갔다.

1) 한국농정신문 기사(2021.12.5.) <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011>

“창업 전에 인터뷰를 다녀보면 전문 체험농가는 전문성을 갖고 싶어 했고, 일반 농가는 체험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시도조차 못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가 파트너가 돼서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서로 채울 수 있는 요소가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 흥인기 대표 인터뷰 중 -

오늘도 프룻해  프루떼  
FRUITTE

일반 도시민들이 가족 단위 농촌 체험을 하려고 하면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농장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활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아이가 놀기에 환경은 적당한지, 예약 방법이나 체험 비용 등은 얼마인지, 인터넷을 아무리 뒤져봐도 찾아보기 힘들다. 비교적 규모가 큰 농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들만 주로 검색될 뿐이다. 프루떼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농촌체험 플랫폼 사업이 소규모 농가와 개별 이용객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무엇보다 어떤 농가를 섭외하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이었다. 흥대표는 어떤 농장을 어떻게 도시민들에게 소개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에 직접 발로 뛰면서 농가를 찾아다녔다. 인터넷으로도 찾고, 주변 소개도 받고, 매주 일주일에 몇 번씩이나 지방을 다니면서 많은 농가들을 만났다. 일단 전화를 하면 열 곳 중 여덟, 아홉 곳은 연락을 안 받거나 사기꾼인줄 알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연락이 닿고 약속을 잡아 구체적으로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면 거의 성사되었다고 한다.

프루떼가 처음으로 계약한 농가는 예산에 있는 돌다리 농원이었다. 2019년 8월 지인 소개로 찾아간 예산의 사과 농장에서 본인들은 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신 소개해준 농장이었다. 농장주와 몇 번의 대화 끝에 프루떼의 사업 내용에 잘 공감해주었고, 젊은 창업가의 꿈을 응원해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농장 중 한 곳으로 자리 잡았으며, 나아가 프루떼에 농업 분야 고

문이자 든든한 지원군으로 함께하고 있다. 요새는 오히려 서비스를 진행 중인 농가에서 다른 농가를 소개해주기도 하고 먼저 연락이 오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다.

프루떼는 6천 평 미만의 중소농가이면서 가족농 중심으로 운영하는 농가를 주로 선정하고 있다. 그들이 초기에 생각한 지역 불균형 문제는 농가 선정 기준에도 적용되고 있다. 이미 시설을 갖춘 전업 체험농가보다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작은 농가들과 함께 더 많은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있는 농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사업 초기 팀원들 중에서 수요가 많은 경기도권 농장으로 사업을 집중하는 게 어떨까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음에 세운 원칙에 따라 지방에 있는 농장을 우선적으로 발굴해 나갔다. 그동안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방 소도시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가능하면 친환경 농사를 하는 농가를 선정하고 있다. 아이들과 같이 가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무심코 농작물을 입에 넣었을 때 해롭지 않을 정도의 친환경 기준을 유지해주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본래 농사만 짓던 농장에서 손님들을 위한 공간을 찾아내고 조성하는 게 프루떼의 또 다른 숙제였다. 체험을 하지 않는 농장의 경우 기본적으로 농작업에만 용이하도록 공간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장주의 성향에 따라 예전부터 경관을 이쁘게 꾸며놓은 곳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어 농장체험에는 열악한 조건인 곳들이 대다수였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농장에서도 어떻게든 그곳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이 프루떼의 경쟁력이기도 했다.

### 팜크닉 농장



## 프루데만의 차별화된 팜크닉 운영방식

팜크닉은 기본적으로 농장에서의 색다르고 프라이빗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농장 내 가족 단위 피크닉 공간을 조성해놓고 그들끼리 2~3시간 정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해 준다. 방문객들은 농장 한편에 돛자리를 펴고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쉬면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거나, 아이들은 도시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흙놀이나 농장의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를 한다. 해당 농장의 농산물 픽킹을 포함한 소소한 체험활동은 덤이다. 농장 내 유희공간을 활용하고, 농사가 이루어지는 곳과 방문객이 머무는 공간을 분리해서 농업 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하는 점들이 다른 농촌 체험과 팜크닉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프루데가 직접 공간을 구성하고 여건에 맞게 주차공간이나 놀이공간 등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특별하게 준비할 게 없다. 방문 당일 손님들이 오면 안내 해주고 체험 프로그램이 있으면 체험을 도와주거나, 2~3시간 정도 방문객들이 앉아서 놀다 가면 자리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처럼 농가의 부담이 안가는 선에서 쉽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프루데 사업의 핵심이다. 농가에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힘이 들거나 자칫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면 방문객에게도 질 낮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체험이 가능한 기간이나 개방 시간도 전적으로 농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초기에는 프로그램에 식사까지 포함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음식을 준비하는 게 농가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일이라 지금은 식사는 빼고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거나 방문객들이 직접 먹을 음식을 싸오게 하고 있다. 농가에서는 기존에는 몰랐던 외부 손님들과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고, 농장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활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 큰 만족감을 얻고 있다.

일단 프루데와 계약을 하게 되면 농장주들은 서비스 관련 교육을 받게 되고, 농장 여건에 맞는 팜크닉 공간을 조성한다. 농장에 놀이터나 천막을 세워 꾸미거나 화장실 같은 농장의 자산이 되는 것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농장에서 부담을 하지만, 팜크닉에 필요한 소품이나 소모성 용품은 프루데가 지원하고 있다. 초기에는 시설투자는 최대한 지양하고 농장이 기존에 가진 자원이나 특성을 살려 공간을 조성한다. 어느 정도 손님들이 늘어나면 수

요에 대응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확장하고 있다.

농장에서 첫 프로그램을 하는 날에는 프루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운영을 같이 돕는다. 농사일에 방해되지 않게 동선을 맞춰드리고, 고객 응대가 서툰 농장주분들에게 손님들과 대화하는 법도 알려드린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장 상황에 맞도록 수정할 것들을 바로바로 피드백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하며 함께 운영하는 파트너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 체험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체크해 나간다. 꾸준히 계약을 맺은 농가들과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약 60여 개 농가가 프루떼의 고객이자 지점으로서 함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프루떼는 농가와 프로그램 셋팅 및 운영 안정화를 고려하여 2년을 기본으로 계약을 하고, 이후 자체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와 계속 운영 관리를 요청하는 농가를 나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립을 희망하는 농가의 경우, 프루떼와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플랫폼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티켓팅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장에서 생산·가공한 농산물을 추가적으로 판매하여 농장과 체험을 통해 인연을 맺은 고객의 관계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루떼는 단순히 체험프로그램 예약 플랫폼이 아니라 프로그램 기획부터 고객관리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맡아서 챙겨주기 때문에 고령 농가들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 팜크닉 농장



## 프루떼로 떠나는 새로운 농촌 여행

프루떼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예약가능한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부터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제철에 맞는 다양한 농산물을 픽킹하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해당 농장에서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인천 강화도에 가서는 고구마 픽킹을, 충남 청양에 가서는 알밤줍기와 라벤더 체험을. 이처럼 체험객은 프루떼 사이트를 통해 정해진 기간에만 오픈되는 농장을 골라 원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계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한 농촌 체험을 프라이빗하게 즐길 수 있어 아이들이 있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안성맞춤이다. 땅에서 나는 작물들을 직접 수확하는 기쁨을 느끼며 초록의 자연 속에서 즐거워할 아이의 모습에 부모님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핀다. 재미와 휴식, 교육적 효과까지 일석삼조인 셈이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도시에서 벗어나 한적하고 안전한 농장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된다. 프루떼의 팜크닉 체험은 인당 1만5천 원에서 3만 원 선으로 프로그램에 따라, 제공되는 농산물 원물에 따라 가격이 정해진다. 농작물을 픽킹하는 것까지 포함되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지고, 단순히 공간만 피크닉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저렴하게도 이용할 수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단골 고객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10번 가까이 프루떼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역과 작물을 계절에 따라 즐기는 고객이 늘고 있다.

### 프루떼 예약 홈페이지

**인기 급상승 픽크닉**  
많은 방문자들이 방문하고 있어요.



프루떼 픽킹 팜크닉  
천안 벼수확 & 허수아비만들기

벼 수확부터 쌀 포장까지! 일일 짠 농부체험  
충청남도 천안시  
#자연놀이#지역별#아이와

[전체보기>](#)



프루떼 픽킹 팜크닉  
천안 그린파파야픽킹 & 썸땀만들기

열대 식물원에서 즐기는 팜크닉과 썸땀만들기  
충청남도 천안시  
#과일#자연놀이#지역별#아이와

코로나19로 농촌 관광산업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프루떼는 코로나19가 자신들에게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애초에 단체 위주 농촌 체험 방식에 대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업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처음 사업을 시작한 2020년에는 한 달에 한 개 농가밖에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많게는 7~8개 가량의 농가 체험 프로그램을 오픈하고 있다. 현재는 조금씩 사업의 속도를 조절해 나가야 할 정도로 농가의 수요 또한 늘어난 상태이다. 코로나 이후 틈새시장을 개척한 프루떼에게 단체 체험 위주에서 가족 단위 체험 프로그램으로 바꾸고자 하는 농가들의 컨설팅 요청이 밀려오는 상황이다. 증가하는 상품과 수요에 맞춰 지난 6월부터는 직접 개발한 새로운 홈페이지에서 보다 손쉽게 예약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까지 프루떼 이용 고객만 누적 1만 여명 이상이 되고 있으며, 연간 약 70회 이상의 농장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프루떼는 '상생'을 꿈꾼다. 때문에 파트너가 된 농장들에게 별도의 컨설팅과 관련한 비용이나 수수료를 일절 받지 않는다. 체험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평균 65대 35정도의 비율로 농가가 많이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농산물 원물이 포함되면 농산물 가격은 그대로 보전하는 방식으로 수익 배분이 이루어진다. 체험 농가들의 농산물 판매, 즉 커머스쪽 사업도 이루어지는데, 농가에서 받기 원하는 가격을 최대한 보전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약 15~20% 정도의 마진으로 프루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팜크닉이나 커머스 매출이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향후 커머스 방면으로 사업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원물뿐 아니라 자체적인 가공 제품을 출시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까지 확대하여 커머스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팜크닉과 관련해서는 캠핑과 연계한 팜핑 공간 조성을 계획 중이다.

### 프루떼 커머스 홈페이지

**팜규레이터 추천 상품**

 <p><b>[수확배송] 국산 강원도 화천 생 아스파라거스(소 사이즈) 1kg, 2kg, 3kg, 4kg</b> 15,500원 (99,000원) <b>82%</b> #산간지역 #국산 #화천산</p>	 <p><b>원도 바닷바람 맞고 자란 비타민 가득 건더기 없는 프리미엄 수제 착즙 유자청</b> 18,800원 (59,000원) <b>65%</b> #원도바닷바람맞은건더기 #산물농산물 #유자청</p>	 <p><b>둘다리농원 100% 예산 순수생사과를 100봉지 (50봉지 x 2box 묶음상품)</b> 62,000원 #예산사과 #100%순수생사과 #둘다리</p>
---	--	---

더불어 한 지역의 농가를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 단위로 체험 농가들을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로 양구군과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었고, 지금은 청양군, 예산군, 경기도 광주시 등의 지자체와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프루떼는 최근 가족 단위 체험 농가가 늘어나는 것이 농촌 관광의 패러다임의 전환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농촌 관광산업의 파이가 커지고 있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니즈나 만족이 높아지는 현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면서도 추가적인 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사람들은 여전히 농촌 체험에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프루떼는 또 한번 니처(nicher)로서 이러한 수요에 한발 더 빠르게 대응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농촌체험을 예약해서 간다는 생각을 거의 안했는데, 지금은 몇 주 전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우리끼리만 갈 수 있는 농촌 체험의 개념에 많이 익숙해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주로 미취학 아동 가정이 주요 고객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성인들이나 젊은 커플들도 농촌 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 흥인기 대표 인터뷰 중 -

수요가 비어있는, 또는 숨어있는 잠재된 시장을 발견해 개척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농촌관광, 특히 소규모의 농촌 관광은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외면받아 왔다. 대부분 단체 관광객을 주 타깃으로 삼아왔던 농촌 관광이 위기에 직면했던 순간, 틈새에서 성공의 실마리가 새어 나왔다. 잘되는 곳 위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고, 사람들의 만족도도 높을 수는 있다. ‘농촌에서는 왜 어려울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그리고 생각의 전환으로, 나아가 실천으로 이뤄낸 모델이 바로 프루떼이다. 지역 불균형에 대한 문제와 기회의 평등, 사업의 확장성을 농촌에서 해결해보고자 시작된 프루떼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농촌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잘 안되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잠재된 가치를 발견해 꽃을 피우게 만드는 능력은 프루떼가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다. 앞으로도 그들의 영역을 차츰차츰 넓혀가 농촌 관광을 이끄는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02 장수 장수청년산사공

# 장수군의 길을 만들고 길을 밝히는 청년들의 이야기

- 📍 소 재 지 전북 장수군 장수읍 방촌길 10
- 👥 단 체 명 장수청년산사공
- 📌 주 요 내 용 장수군의 가속화되는 지방소멸에 대응하고자 청년 일자리, 영유아보육시설 등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확대하는 장수 청년공동체
- 🔍 키 워 드 청년공동체, 영한상점, 아이온놀이배움터



현재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청년 인구와 영유아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도시와 비교되는 열악한 청년 일자리와 영유아 보육 환경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라북도 장수군 또한 청년 인구, 영유아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 지역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농촌지역이다. 이에 장수군의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고자 장수군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영유아 보육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장수군 최초의 청년공동체 산사공을 찾아가 보았다.

## 장수청년산사공의 시작

같은 군 단위여도 장수군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기반이 열악한 편이다. 장수청년산사공(이하 산사공)은 장수군의 청년 관련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군 청년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로써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산사공은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장수군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청년 인구 증가에 필요한 요소들을 사전에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양질의 일자리, 주거,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방과 후 아이들을 위한 돌봄시설이 우선순위로 나타났다. 이에 산사공은 청년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장수군 청년과 아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였다.

2021년 3월에 전라북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유경제 사업에 선정되면서 산사공의 활동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우선 산사공의 활동 거점이 되는 시설을 설치하였다. 장수군 청년들의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1월에 장수군 내 집객시설과 총인구분포가 높은 장수읍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 ‘영한상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 3월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아이온놀이배움터’를 30~40대 청년과 영유아 인구가 높은 장계면에 조성하였다.

영한상점 내·외부



아이온놀이배움터 내·외부



## ☺ 장수 청년들을 위한 공간 영한상점

영한상점은 장수군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다. 초기 창업의 어려움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할 기회를 제공받고, 창업 워크숍 개최, 굿즈 상품개발 등 장수군 청년들의 창업·창직 문화 조성을 위해 설립된 공간이다.

무엇보다 외부의 창업 전문가 초빙(인턴사장님 프로그램)과 청년단체와 협업 및 사례 공유(프리워커스 프로그램)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장수군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컨설팅에 힘쓰고 있다. 인턴사장님 프로그램은 창업교육 세미나로 연 5회를 진행하고 있다. 1회당 참가자는 평균 15명으로 연평균 약 60명의 장수군 청년들이 참가하고 있다. 프리워커스 프로그램은 인근 전북지역의 청년단체들과 우수한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세미나로 연 6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평균 약 60명의 전북 청년들이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장수군 청년들과 지역주민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어르신들이 체험하기 어려운 드로잉클래스, 제과제빵, 캘리그래피 등의 새로운 문화프로그램을 장수군 청년 또는 외부 강사 초빙을 통하여 진행한다. 이를 통해 장수군 주민들의 문화 활동 증대와 지역주민들 간의 관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영한상점은 장수군 청년정책을 개선 및 발굴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과거 장수군의 청년예산 비율은 20%로, 타 군지역과 비교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기반이 열악한 편이었다. 이는 장수군 내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신규 청년 유입에 어려움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장수군 내 인구 불균형 현상으로 인한 지역소멸 현상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러한 현상을 사전에 대응하고자 장수군에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인 청년 정책에 관하여 지자체와 청년들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율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자체와 청년들 간의 활발한 의논을 통해 현재 장수군의 청년정책 예산 비율은 20%에서 40%로 증가하였으며 창업 지원과 문화 활동 사업뿐만 아니라 공유주택, 공유쉐어카 등의 주거 지원사업, 장수군 식음료 개발, 장수 여행프로그램 등의 로컬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청년과 장수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면서 현재 장수군으로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리워커스-사례공유



청년강사프로그램

## 🌱 장수 아이들을 위한 공간 아이온놀이배움터

장수군은 인구 분포 중 30~40대의 청년 인구 분포가 가장 적다. 장수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영유아 인구 대비 돌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에 산사공은 30~40대 학부모와 영유아 인구 분포가 높은 장계면에 '아이온놀이배움터'를 설립하여 장수군의 열악한 영유아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기획하였다.

아이온놀이배움터는 아이들이 농촌지역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위주로 기획하여 월 4~5회, 11개월로 총 15명의 영유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청년샘스쿨(창의체육활동)을 운영하여 농촌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드론, 메타버스, VR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청년과 주민들의 재능을 나누는 일본문화, 중국문화, 창의미술 등 학업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여 장수군 아이들에게 질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아이온놀이배움터는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사업을 통해 한국마사회 기금, 한국농업진흥원 전산장비, 전주대 교육프로그램과 커리큘럼 지원 및 자문을 통하여 아이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다. 전산장비를 통한 화상교육을 통해, 대학교 교수, 전문가들의 질적인 수업(코딩, 메타버스, 외국어 교육 등)을 농촌 아이들에게 제공하여 농촌 아이들의 사고를 발달시킬 계획에 있다.

#### 아이온놀이배움터 교육프로그램- '청년샘스쿨'



## 산사공의 끊임없는 노력

산사공은 장수군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청년들과의 관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장수군에 살고 있는 내·외국인 청년과 전북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모여 여행프로그램, 한식문화체험 등의 문화 활동을 함께 기획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장수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공무원들의 소비 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장수군 장수읍 상권의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인근 농촌지역의 협동조합과 행정기관과의 MOU 협정을 통해 전북 여행프로그램과 지역 매거진을 기획 및 제작하여 장수군 지역을 홍보하고 있다. 장수군 지역 홍보를 통해 관광객 증가와 지역 내 창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장수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지속가능한 지역 정착을 위해선 청년과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관계가 중요하다. 현재 농촌으로 귀촌한 청년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취업, 결혼, 창업 실패 등의 부정적인 시선이 대다수이며, 청년들은 무료 인력으로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강한 편이다. 이러한 점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산사공은 청년과 지역주민들 간의 유대관계를 개선하고자 '어쩌다 장수청년'을 집필하게 되었다.

'어쩌다 장수청년'은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15명의 내·외국인 청년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각각의 청년들이 장수군에 내려오게 된 계기부터 현재 장수군의 문제점과 지역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본인의 향후 계획을 정리한 내용으로, 장수군 청년들이 장수군에 대한 애정을 담은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청년들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산사공은 희망하고 있다.



뉴노멀 전북관광콘텐츠-외국인여행프로그램



'어쩌다 장수청년'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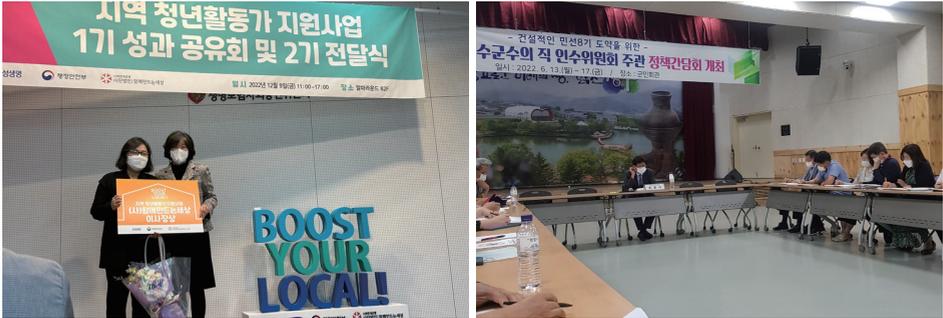
산사공은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장수군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스투어로컬(지역청년활동가지원사업)'사업을 통해 총 3가지 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사공의 세부 계획은 로컬에 대한 더 다양하고 깊은 이해를 위한 로컬연구, 로컬콘텐츠 발굴 및 개발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다양한 파트너십 확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계획을 설정하였다.

로컬연구는 청정 농업도시 장수군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한 연구로, 농업의 비중이 높은 장수군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이다. 장수군의 농업인, 청년, 지자체, 다학제 간의 대담과 연구를 통해 장수군 농업 발전과 농업 외 로컬자원을 발굴 및 확대하기 위한 계획이다.

로컬콘텐츠 발굴은 장수군 관광객 유치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이다. 장수군 청년들과 지역주민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장수군만의 콘텐츠 발굴과 매거진, 굿즈 제작을 확대하여 장수군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이다.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은 장수군만의 지역문제를 탐색하고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다. 아동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협업, 창업 프로그램 컨설팅 질적 수준 제고, 외부 청년단체 협업 확대, 장수군 지역주민들 간의 화합 프로그램 재구성 및 확대를 통해 장수군만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부스트유어로컬-지역청년활동가 지원사업



 시사점

고용노동부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이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며, 이중 고위험 지역 45개는 모두 농촌지역이다. 농촌지역의 지방소멸 우려가 가속화된 이유는 201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주된 일자리를 구성하는 지역 제조업이 쇠퇴하고 양질의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면서 농촌지역의 청년 인구가 유출된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의 핵심인 청년 인구 유치를 위한 지자체 주도의 해당 지역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자립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산사공은 장수군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아이돌봄서비스 및 의료환경 개선 등의 장수군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확대하여 장수군의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단체의 활동이 여러 농촌지역에서 실행된다면, 농촌지역 내 청년인구 유치 및 증가가 가능해져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 인구 불균형 문제와 나아가 지방소멸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지속가능한 농업을 꿈꾸는 청년들, 발명으로 모이다

- 소재지** 강원 영월군 상동읍 태백산로 2495-13
- 단체명** 발명
- 주요내용** 퍼머컬처를 기반으로 농사를 지으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청년 농업인 단체, 퍼머컬처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함께 모여 교육 활동 및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
- 키워드** 퍼머컬처(Percaculture), 청년농업인, 청년마을, 지역 공동체



- 1) 소소한정원 2) [ ]하우스 3) 발메이카 발명스테이
- 4) 비바람정 5) 팜가드닝정원 6) 명두막 7) 명마루 8) 나뭇잎밭
- 9) 메주방 10) 주차장1 11) 주차장2

## ② 전쟁이 나도 모른다는 영월의 동쪽, 산골마을에 위치한 나뭇잎밭에서 퍼머컬처를 만나다

‘퍼머컬처(Permaculture)’란 지속성(Permanent)과 농업(Agriculture), 문화(Culture)의 합성어로 좁은 의미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뜻한다. 나아가 퍼머컬처는 농업 외에도 건축, 교육, 커뮤니티 등 다양한 분야의 윤리적인 삶에 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 퍼머컬처가 들어온 지는 20년이 넘었으나 아직 저변이 넓진 않다. 최근 기후위기 등을 계기로 생태건축, 치유농업 같은 분야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을 목표로 이루어지는 농업을 지향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경제성을 따지는 관행농업에서는 여전히 관심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단순히 농업활동을 하고 싶다고 보다 자급자족적인 전원의 삶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퍼머컬처가 화두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이들이 퍼머컬처의 주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역할하면서 퍼머컬처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찾아 들어간 영월 상동읍의 작은 마을에서 퍼머컬처를 실현해가는 청년들이 있다. 나뭇잎 모양의 밭을 일구고 있는 청년마을 ‘밭멍’은 스스로를 농부가 아닌 밭을 만드는 사람들, 즉 ‘밭메이커’로 부르고 있다. 지속가능한 농업과 문화, 퍼머컬처를 지향하며 기존에 없던 자급자족 라이프스타일을 시도하는 밭멍 청년들을 만나 밭멍의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영월군 상동읍은 태백과 인접할 정도로 영월군 내에서도 오지에 속한다. 상동읍은 과거 1950년부터 텅스텐 광산 개발로 인해 크게 성황을 이루어, 1970년대에는 인구가 2만 4천 명에 달할 정도로 영월군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폐광 이후 차츰 쇠퇴의 길을 걸어왔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읍으로 인구가 1천 명이 채 되지 않는다.

밭멍 김지현 대표는 영월군 상동읍에서 나고 자라 고등학생 시절까지 보내온 영월 토박이다. 김 대표도 다른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면서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관광학을 전공하여 부산 등지의 호텔에서 호텔리어로 일을 하면서 지냈다. 그녀는 고향에 돌아올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부모님의 권유로 2010년 강원랜드로 이직하

게 되면서 영월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다. 그러다 영월에서 농사일과 절임배추 사업을 하던 아버지께서 2014년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아버지를 대신해 밭과 절임배추공장을 책임지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못한 계기로 농업에 첫발을 내딛었다. 농사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면서 밤낮없이 바쁜 삶을 살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퍼머컬처를 접하고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강원랜드에서 지원해주는 야간대학 과정으로 강원대 관광학과 3학년 과정으로 편입하게 되었는데 그때 들었던 수업 과목 중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 개발론’ 수업을 통해 퍼머컬처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실용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인 퍼머컬처 농장 설계와 운영 방법에 대해 크게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당시 퍼머컬처가 가진 가치에 함께 공감했던 사내 교수님과 동기 한 명이 모여 퍼머컬처를 주제로 한 사내벤처를 만들게 됐다. 강원랜드 산하 재단인 하이힐링원 내에 테스트 농장을 일구며 사내벤처 1기로 시작한 사업은 나름 성공적이었다. 농산물을 수확해 팔고, 퍼머컬처와 관련된 컨설팅과 교육, 퍼머컬처 정원 설계 등을 통해 첫해부터 이익을 창출했다. 이를 통해 퍼머컬처의 생산성과 실용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귀농·귀촌 박람회 등지에서 퍼머컬처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퍼머컬처 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발견하면서 자체 교안을 만들어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교육을 하다 보니 아예 정원을 만들어 달라거나 설계를 요청받는 일도 늘어났다. 도시농업이나 옥상텃밭 등이 유행하던 당시의 흐름에 힘입어, 이 일환으로 서울혁신파크와 도봉구청 등 수도권 내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사내벤처로 시작했던 사업이 2년간 잘 성장하고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규모가 커지다 보니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퇴사를 하거나 벤처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초기에 함께 벤처사업을 시작했던 교수님과 김지현 대표는 2021년 퇴사하여 각각 본인만의 퍼머컬처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교수는 정선군에서 ‘맛있는 정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중년층 혹은 어느정도 사회적 기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퍼머컬처 사업을 비즈니스 모델로 잡았다. 반대로 김지현 대표는 영월군에서 청년층과 기반이 적은 사람들이 실현 가능한 퍼머컬처 사업 분야로 정해 영역을 구분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의

‘발명’인 것이다. 영월의 ‘발명’과 정선의 ‘맛있는 정원코리아’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퍼머컬처를 대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같이 협업하고, 교류하며, 서로에게 든든한 조력자로서 역할하고 있다.

### 퍼머컬처 교육



## 🌱 퍼머컬처의 가치를 배우러 삼삼오오 모여든 청년들, 발명프렌즈!

인터넷에 발명을 검색하고 관련 기사나 포스팅을 읽어본다면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진이 있다. 바로 ‘나뭇잎 밭’이다. 2021년, 김지현 대표가 발명을 창업하면서 처음 시작한 일은 가족들이 일구던 밭을 퍼머컬처 정원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원래 이 밭은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임대한 땅으로, 배추농사를 하기 전에는 감자, 옥수수 등을 심었던 밭이었다. 비탈진 땅이었지만, 오랫동안 계속 봐왔던 터라 땅의 특성을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어 퍼머컬처를 접목시킨 형태로 디자인하기가 수월했다. 나뭇잎 모양은 바이오미미크리(Biomimicry)라는 자연에 있는 패턴들에서 디자인을 착안하는 생체 모방 기술을 접목한 것이다. 공중에서 보면, 진짜 나뭇잎처럼 구획이 나뉘어 있다. 줄기와 잎맥은 농로가 되고 나뭇잎의 잎맥은 물과 양분을 최적화하게끔 받아들이고 내려주는 형태이다. 그리고 그 사이 사이 구획마다 다른 작물을 심을 수가 있다. 이 특별한 나뭇잎 텃밭은 단순히 모양이 이쁜 것에서 나아가 실제 땅의 형질과 잘 맞아야 하는데, 이 3천 평의 땅이 퍼머

컬처를 접목해 디자인한 나뭇잎 패턴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나뭇잎 패턴을 가진 키친가든이 당시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 나뭇잎밭



나뭇잎 밭은 심미적인 이유로 꾸며진 모양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이유로 디자인된 것이다. 과거 이 밭은 비스듬하게 경사져 있어 윗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가 비가 많이 오면 지대가 낮은 부분으로 쓸려 내려가는 문제가 있었다. 어느 해는 배추가 싸그리 다 쓸려 내려간 적도 있을 정도다. 나뭇잎 모양은 물을 모으기보다는 잘 퍼지게끔 하는 데 실용적인 장점이 있었다. 또한 텃밭 설계과정에서 각각의 토양 특성을 고려해서 비옥한 곳은 두둑을 만들어 더 비옥하게 만들고, 어느 쪽은 물을 저장하게 하여 관목을 심거나, 어디는 토양 성분에 맞는 채소나 허브류를 심기도 했다. 밭은 농작업을 위한 동선을 만들고 외곽은 차로 다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다. 가운데 길은 기초 장비가 다닐 수 있게 3.4m 정도로 넓게 조성하고, 큰 밭은 작은 리어카 정도 들어갈 수 있게, 어느 길은 또 사람만 걸어갈 수 있게 구분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밭 자체가 밭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경관적으로 잘 보이게끔 다양한 작물을 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밭을 조성한 후, SNS에 본인들의 텃밭과 농작업 활동들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뜻밖의 청년들이 밭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청년들을 모을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하고 있었는데 SNS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볼 수 있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처음에는 왜 오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렇게 전화로 한 명 두 명씩 오라고 하다보니 그런 친구들이 약간 많아지게 되니까 10 월에는 아예 자체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 김지현 대표 인터뷰 중 -

처음에는 나뭇잎 모양의 밭이 신기하고 예뻐서, 호기심에 청년들이 하나둘 찾아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밭명에 찾아오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면서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요즘 청년들 중에는 자급자족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큰 청년들이 꽤 많이 있다 것을 알게 됐다. 환경적인 가치를 우선하고, 나를 위한 삶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늘 마지막에 언급되는 것이 퍼머컬처였다고 한다. 그렇게 다양한 계기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청년들이 밭명에 이르게 되었고 그렇게 밭명의 정체성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 밭명프렌즈



청년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2021년도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밭명프렌즈'를 모집하고,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했다. 5개월 동안 36명 정도가 밭명을 다녀갔다. 초기 방식은 농장을 매일 오픈해 사람들이 최소 일주일에 4일 이상 농장에 오도록 하고, 날마다 해야 할 일을 정해 다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하루 일정에 따라 밭일을 하기도 하고, 닭장을 만들거나, 씨앗을 뿌리거나 농장에 필요한 일을 같이 하는 것

이다. 파티를 할 수도 있고,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매일 정해진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형식이었다.그들과 4개월 가량 단칸방에서 같이 살고, 매일매일 같이 농사를 지으면서 퍼머컬처를 공유하고, 테스트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그들에게 별도 비용을 받지 않았다. 방문한 청년들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만큼의 식대나 교통비 등만 알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되었다. 이때 발명프렌즈로 만났던 청년 중 한 명이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는 활동과 다르지 않다며 지원을 해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 대표는 퍼머컬처라는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 관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사업에 지원하였다. 당시 영월군 청년사업단의 도움으로 2022년 5월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면서 발명에 대한 지역에서의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청년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면 매년 2억 원의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이중 4천만 원 정도는 배추절임공장을 청년들을 위한 공유주방, 회의공간 및 휴게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데 활용했다. 일부는 인건비로 사용하여 오랫동안 같이 활동한 친구들을 발명의 운영진으로 영입하여 단기 계약 형태로 일할 수 있게 했다. 대표를 제외한 운영진은 현재 4명이며, 발명프렌즈로 왔다가 발명에 더 남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참가자 중 마음이 맞는 이들을 채용했다. 운영진들은 모두 각자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데 모종과 스테이 운영 담당, 회계 업무 담당,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업무 담당으로 구성되어있다. 나머지 지원금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업 참여 대상 청년들을 위한 숙소나 식사비, 정원만들기에 필요한 재료비 등으로 소진된다.

사업 초기에는 주민 네트워크 활동 등 세부적인 것들을 실적으로 일일이 기록해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곳저곳 지원사업을 찾아다니는 진정성 없는 청년들도 더러 방문하는 등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2년 차에 접어들어서 퍼머컬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모집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 이후 청년들이 오가며 지역 식당에서 다같이 식사를 하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과 같이 정원을 가꾸는 등 다양한 교류 활동이 쌓이면서 지역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청년마을만들기



## 🌱 지속가능한 삶, 퍼머컬처를 꿈꾸는 청년들의 베이스캠프로 자리잡길

2022년에도 발명프렌즈는 계속 진행형이다. 지속가능한 농법과 농촌에서의 삶을 배우려는 청년들의 방문도 끊이지 않는다. 청년마을만들기 사업 선정 이후 더욱더 본격적으로 청년 대상 교육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작된 PDC라는 퍼머컬처 디자이너 코스는 72시간 프로그램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매달 평균적으로 16명씩 참여하여, 올 11월 기준 누적 참가자가 거의 160명이나 된다. 이렇게 발명에 다녀간 후에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퍼머컬처를 실현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청년 창업농이나 농업 기반을 물려받은 청년들은 각자의 삶터에서 퍼머컬처를 실현하기도 하고, 이를 활용한 비즈니스를 하기도 한다. 발명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거나 이미 귀농하여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안성맞춤인 셈이다.

김지현 대표는 그간의 지역살이 노하우와 퍼머컬처 농법 교육, 마케팅 경험 등을 청년 농부에게 전수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발명 프로그램 참여자들 중에는 재방문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이며 계속해서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끈끈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 김 대표는 요즘 청년세대는 '정착'이라는 개념과 익숙한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언제든 이동할 수 있고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자유로운 세대이며 이들을 붙잡아 두는 것보다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머뭇리며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으로 농촌이 자리 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착인구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역과 관계를 맺는 인구를 늘리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정부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점이다.

앞으로 발명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잘먹고 잘살기 위한 자급자족라이프실험소'라 이름 붙인 프로그램을 세 기수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텃밭을 가꾸며 농업과 친해지고, 직접 수확한 채소들로 음식을 만든다. 폐 파레트로 만든 닭장과 땅 냉장고에서 꺼낸 계란과 당근으로 건강한 식사를 하고, 청년들이 힘을 합쳐 황토로 만든 오븐에 피자를 굽는다. 식사 후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로 자체 순환하도록 밭에 뿌린다. 자연농법을 기반으로 한 선순환체계의 적극적인 실현이다. '지구를 보살피고, 사람을 돌보고, 공정히 나눠라'라는 퍼머컬처의 세가지 윤리 원칙에 따라 발명은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처럼,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발명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본다.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 01 순천 / 문성마을

02 제주 /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CHAPTER

IV

지속가능한  
농촌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



## 채움과 나눔의 서로 돌봄 마을

- 📍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문성길 67
- 👥 **단체명** 문성마을
- 📄 **주요내용** 마을주민 주도로 15개년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소득 기반을 안정화하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연금 사업, 돌봄 사업 등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
- 🔑 **키워드** 마을공동체, 마을발전계획, 소득사업, 주민복지, 사회적경제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에 걸쳐있는 아미산 자락, 월치재 계곡을 타고 맑은 물이 내려오는 곳에 위치한 문성마을은 오래 전부터 학문을 연구하기에 적합한 곳이라 여겨져 ‘서당골’이라 불렸다. ‘문성(文星)’이란 그 이름처럼 과거 시험에 통과해 관직에 오르는 인물이 매년 배출되며 명성을 떨치던 서당골.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15가구 남짓에 평균 주민 연령은 70대인 낙후된 시골 마을로 전락했다. 사람들이 마을을 떠나면서 오랫동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을 곳곳에는 농약병과 폐비닐이 쌓였고, 과거 서당골이 가지고 있던 멋진 풍경은 사라져갔다.

위기에 처해 있던 문성마을의 현재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걱정과는 달리 2023년, 현재 문성마을 공동체는 13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단단한 조직을 구축하였다. 게다가 마을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매출액은 5억 원에 달한다. 희망을 잃어가던 문성마을은 전국 농촌 마을 중에서도 각광받는 선진마을로 바뀌었다. 문성마을을 벤치마킹 하고자 전국 각지에서 현장 견학과 실천 사례를 배우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통계 수치로는 연간 300회, 1만 2천여 명이 문성마을을 찾아온다. 사람이 떠나가던 마을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마을로 변한 것이다. 이 모든 결과의 중심에는 공익을 기반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자 하는 ‘문성마을 발전 계획’이 있다. 15년 장기 계획의 마무리를 2년 앞둔 시점, 위기를 극복하고 180도 달라진 문성마을의 비책을 살펴보자.

## 채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마을

문성마을 변화의 첫 삽을 뜬 것은 마을 규범 만들기에서부터였다. 문성마을로 귀촌한 이호성 사무국장의 주도로 시작된 ‘농촌 희망 심기 운동’을 통해 마을 규범을 제정한 문성마을 주민들은 마을을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자는 데 뜻을 모았다.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3차에 이르는 정교한 마을 발전 계획 사업이었다. 2014년 문성마을은 사업의 주체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을 출범했다. 마을 전체 농가 중 92%(25개 농가 중 23개 농가) 이상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2025년에 대망의 결과를 맞이하는 문성마을 발전 사업은 문성마을만의 특색을 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을 비롯한 마을 공동체의 자긍심을

고치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문성마을 발전 사업 3차 단계의 모토는 다음과 같다. ‘어른 공경’, ‘주민 행복’, ‘평생직장’, ‘자연과 사람’. 이는 농촌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100세 시대 마을이 되기 위해, 그리고 소득이 창출되는 마을을 추구하기 위한 공동체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문성마을 발전 사업의 단계별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1차 사업은 2011년부터 2015까지로, 이 시기에는 외부 지원 없이 오직 주민 스스로 사업을 일궈내야 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문성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인 콩을 활용해 소득 기반을 조성했다. 그리고 관광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마을 입구 꽃밭, 중앙당 공원 조성 등 마을 경관 및 환경을 정비했다. 2차 사업은 2016년부터 2020까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귀농·귀촌 기반 조성과 서당골길, 마을 주차장 등 편리한 거주 공간을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했다. 이때부터 각종 경진대회에서 다수의 수상 경력이 쌓이면서 문성마을이 알려지게 되었고, 외부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15년 장기 프로젝트의 마지막 단계로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은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5년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정부 사업에 참여하여 마을 자체 인력만으로는 만들 수 없던 농경 체험장, 귀농인의 집, 귀농·귀촌 창업 카페를 조성해 운영하고자 한다. 지속적으로 인구를 유입하고 체류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된 목표다. 이와 더불어 주민 연금 지급 등 주민 복지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 3차 마을 만들기 사업



마을 카페 건립



서당골길 조성

현재 진행 중인 3차 사업의 주안점은 문성마을의 주민복지다. 문성마을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들에게 복지란, 자신이 받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참

여를 통해 함께 채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문성마을 복지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문성마을 복지의 일환으로 마을연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재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명의 주민과 고령자 3명이 그 대상이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연금을 지급한다. 이들에게 일을 해야 한다고 어느 누구도 지시하지 않지만, 마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지 찾고, 마을 공용 공간에서 스스로 청소 등을 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마을의 일원,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고 있다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낀다. 홀로 지내는 상황에서는 스스로 챙기지 못해 어렵지만, 공동체와 어우러지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모든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곳 문성마을에는 소외되는 이웃이 없다.

#### 연금 수혜자의 마을 활동 사진



이러한 연금 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은 마을사업 소득에서 마련된다. 콩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은 매일 2시간씩 주 5일 근무한다. 마을사업은 주민들에게 소중한 일터로, 그리고 평생직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문성마을은 주민 소득 창출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체험지도사, 치유지도사, 영양보호사, 조리강사, 생활스포츠 강사 양성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농가 식당을 일반 식당으로 바꿀 계획이다. 또한 메주, 두부 등 인기를 끌고 있는 로컬푸드를 담당하는 전문 담당자와 숙박시설 일자리와 같이 더 많은 주민이 마을 안에서 평생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의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어르신 토크 콘서트, 배움 나눔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토크 콘서트는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선생님이 되어, 본인들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활동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기록 사업, 서로 돌봄 사업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 사업도 계속 확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전남 문화재단 주관의 '생애 전환 문화 예술 학교' 지원사업을 통해 '오물오물 나의 ㄱ'을 진행했다. 4개월여 기간 동안 주민들은 사진 촬영 기술 등 문화예술 교육을 받았고, 다른 주민들의 사진을 직접 찍어주며 본인의 삶을 기록한 책을 만들었다.

### 오물오물 나의 ㄱ



2022년에는 농어촌희망재단의 '농촌마을 배움나눔 지원사업'도 시작되었다. 이 사업 역시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 마다 봉사활동으로 요리를 하고 손님들을 대접했던 자체적인 마을 활동에서 확대되었다. '온마을 사랑채'라 불리는 이 사업은 조리 교실, 스포츠 교실처럼 주민이 마을 강사가 되어 배움을 나누는 활동이다. 마을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4명의 마을 강사를 양성 중에 있다. 이들은 다음 해부터 지역에서 소외계층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배움을 나누는 활동은 문성마을 밖에서도 이어나갔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김치를 담아서 나눔 봉사를 진행했으며, 다른 마을에서 마을 가꾸기를 할 때에는 모종이나 나무를 지원하기도 했다.

## 나눔 활동 - 김장 나눔 행사



이처럼 대다수의 문성마을 주민은 복지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에 대해 불만이 없다. 오히려 그들이 함께 일궈낸 소득으로 복지 혜택을 나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민들은 복지에 참여한다는 자신감을 느끼고, 그 안에서 삶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 앞서 말한 ‘채워서 나누자’를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 직접 만들어 채운 것을 나누는 것이 문성마을 발전 사업이 만들어 가고 있는 복지다.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받기도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낼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채우고, 이를 다시 이웃들과 나누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했다고 문성마을 주민들은 자부하고 있다. 문성마을이 서로 돌봄 마을로 재탄생한 배경에는 이러한 가치 의식이 숨어 있다.

## 🌱 도시민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문성마을 주민들은 도시민과 함께하는 또 다른 형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된 ‘인이지 농경제험단’이 바로 문성마을과 도시민 매개체다. 현재 ‘인이지 농경제험단’ 도시민 회원은 총 2,400명으로 정회원은 300명, 준회원 1,900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를 가지고 있다. ‘인이지 농경제험단’은 단순 체험을 넘어 농업과 경영을 함께한다. 이 공동체 안에서 문성마을 주민들의 역할은 100일간 옷 된장 담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민에게 농산물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다. 정회원은 1년에

3회 이상 반드시 농사 작업에 참여해야 하며, 사전에 받은 회비로 영농을 진행한다. 1년 농사 수익은 공동체 안에서 배분한다.

‘인이지 농경체험단’ 활동에 참여하려고 문성마을을 찾아오는 도시민의 숙박을 위해 숙박시설 운영도 준비 중이다. 처음에는 텐트를 설치하고 잠을 자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현재는 신축 숙박시설 개발을 코앞에 두고 있다. 농경 체험장 역시 시설을 보충하고 확대해 농촌 체험과 휴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2천 평까지 조성되었으며, 8천 평까지 확대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농경 체험장을 찾아온 도시민들은 작물을 30%가량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시간당 1만 원의 인건비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문성마을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 소득 창출이 가능한 농촌 여가활동 공간으로서 도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 인이지 농경체험단 활동



문성마을에는 농업회사법인 서당골, 인이지 농경체험단뿐만 아니라 고산마을기업, 자연담화 그루경영체, 서당골 작목반이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공동체 중심에는 마을 노인들이 전체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중 ‘고산’은 농작물 가공 전담 농업법인이다. 경작 후 남은 배추가 논밭에 버려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2015년에 설립된 단체다. 가을, 겨울에만 활동한다는 점에서 가공시설물 활용도의 한계가 있지만 연 4억의 소득을 창출하며 마을공동체의 큰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루 경영체’는 산림작물로 가공식품을 제작하는 단체로서 2018년 귀농인이지만 주소지 이전을 하

지 않은 도시민 5명이 모여 시작했다. 2년 정도 활동 후 현재는 잠시 정비에 들어간 상태지만, 향후 음식 가공에 관심 있는 귀농·귀촌인에게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산하지 않고 유지 중이다. 이러한 문성마을 공동체는 평등한 관계 속에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사회적 공동체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성이 강조되는 공동체는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는 것이 그 원칙이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일궈낸 것과 다르게 소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처럼 사회적경제 활동을 주로 진행하는 공동체는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고,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그루공동체', '인이지 농경제협단'은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합의해 운영 중이다.

## 다 함께 100×100×100 프로젝트의 완성

문성마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 함께 100×100×100'이다. 즉, 마을 인구 100명의 월 소득 100만 원을 보장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다. 2009년 사업의 기틀을 다지던 때 문성마을 인구는 불과 24명이었다.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18년도에는 42명, 23년 현재는 6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에는 마을 인구 100명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다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현재 10명의 서당골 일원들은 직접 짓는 농사와 별도로 하루에 2시간 근로를 통해서 월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기 힘든 마을 주민에게는 월 20만 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해당 연금 또한 매년 10만 원씩 증액할 계획으로 7년 후인 2030년에는 대망의 '100\*100\*100 프로젝트'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실행 목표</b>	<p>&lt;다, 함께 100×100×100&gt; 인구 100명 :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이 자연과 어우러지는 마을 소득 100만원 : 소득이 보장되는 마을 건강 100세 시대 향유 : 문화 복지를 창조하는 공동체</p>
<b>실행 방향</b>	<p>&lt;함께, 다 함께 새로움으로&gt; 2011년 ~ 2015년 1단계 슬로건 : 모든 것을 내려놓던 삶 되돌리기</p> <p>&lt;일어나, 다시한번 해 보는거야&gt; 2016년 ~ 2020년 2단계 슬로건 :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p> <p>&lt;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gt; 2021년 ~ 2025년 3단계 슬로건 : 경관환경 조성과 소득원천 창출 및 인구 증가로 생 활형 문화 복지에 연동된 삶의 질 향상</p>

이렇게 문성마을이 15년간의 계획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던 핵심적인 요인은 교육사업이다. 사업 1차 단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 합일도 어려웠고, 제대로 진행되는 일도 적었다. 하지만 순천시로부터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받았고, 조금씩 사업 진행이 순조로워지기 시작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은 실용 교육을 받아 역량을 키웠고, 그 덕분에 마을을 가꾸는 일에도 전문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더불어 발전 사업이 농촌 사회와 경제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비전도 세울 수 있었다.

‘다함께 100×100×100 프로젝트’와 함께 마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교육 기회의 증가다. 실제로 문성마을은 현재 마을공동체의 지원으로 체험지도사 5명, 치유지도사 4명, 요양보호사 5명, 조리강사 2명, 생활 스포츠 강사 2명 등을 양성하고 있다. 마을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선 마을 주민 개개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여럿 있어야 하며, 각 공동체 성격에 맞는 활동도 진행해야 한다. 마을 주민의 역량이나 각 공동체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에 공동의 목표와 더불어 공동체와 마을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이 지원된다면 마을 발전 양상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문성마을 주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문성마을은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보해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공동체 기반 활동들을 더욱더 체계적이고 활발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다. 2년 뒤 마무리될 15년 계획의 성과를 넘어서 농촌 유토 피아를 일구어 나갈 문성마을의 미래를 기대해본다.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 척박한 돌밭에서 '문화x농업'의 새 길을 만들어가는 제주 보롬왓

-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변영로 2350-104
- 👥 **단체명**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보롬왓
- 📄 **주요내용** 메밀 등 일차 농업 생산물을 소재로 문화를 접목하여 2차3차 산업으로 확장 및 고부가가치화(6차산업화), 특히 드넓게 펼쳐진 메밀밭 등 아름다운 농업 경관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하여 지역의 관광 명소로 키워온 영농조합법인
- 🔑 **키워드** 문화를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 공유 시스템, 분업화전문화



## ② 아무도 주목 않던 돌밭에서 문화×농업의 비전을 키우다

9월 한라산 동편의 표선면 산간에 자리한 바람 부는 밭 보롬왓<sup>1)</sup>에는 메밀과 라벤더, 색색의 꽃들이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내며 제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사진 촬영을 하는 젊은 부부와 아기, 연인들, 친구들의 무리가 각자의 방식대로 한가로움을 즐기며 보롬왓 곳곳을 거닐고 있었다. 보롬왓은 제주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이 단연코 즐겨찾는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한 곳이 아닌가 싶었다.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고향인 제주로 귀농한 이종인 대표가 농업을 결심하고 일을 시작하면서 땅을 구할 때 이곳은 제주도에서 가장 저평가되었던 곳 중 하나였다. 중산간에 위치해 도로도 나 있지 않은 척박한 돌밭이라 농업 용도로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당시 적은 예산으로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대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척박한 공간에서 기회를 만들고자 했다.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네 친구가 뜻을 모아 2010년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5만여 평의 땅에서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메밀을 키우기 시작했다.<sup>2)</sup>

메밀 농사를 시작하고서 국내에서 ‘메밀’하면 떠오르는 대표 지역인 봉평에서 유통되는 메밀의 90%가 제주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지인 봉평에서는 문화를 통한 지역 브랜딩을 바탕으로 메밀을 활용한 가공·판매, 관광 등으로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 대표는 여기에 주목해 생산된 메밀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메밀을 소재로 2차 가공하여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3차 관광까지 이어지는 메밀 축제를 기획했다. 2015년 여름에 작은 규모로 시작한 메밀 축제는 7년여 후인 2022년에는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유명 축제로 발전했다. 별다른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농업을 바라보고 비전을 만들어 간 것이다. 2010년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을 만들 당시 8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25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10만여 평 부지의 보롬왓에는 1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다.

1) 보롬왓은 바람 부는 밭이라는 뜻을 가진 제주 방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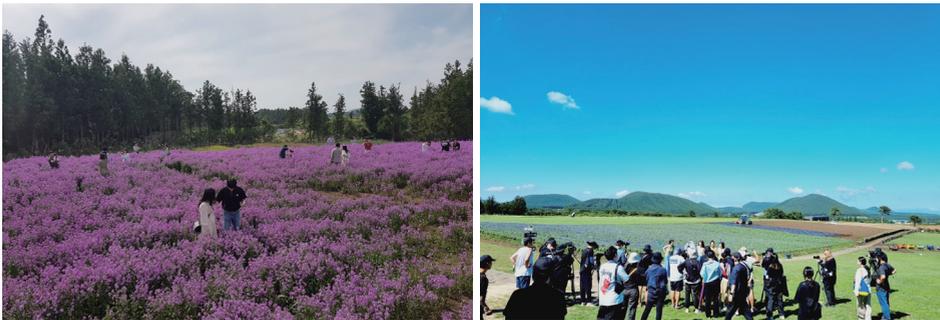
2) 보롬왓을 시작하고 '22년 기준 연간 40만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일구기까지의 활동 내용은 한국농촌경제 연구원의 2018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의 “척박한 땅을 일궈 지역의 명소로 가꾸는, 제주한울영농조합법인”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 🌱 '농사' 아닌, 문화를 입힌 '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이 대표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지만 우리는 ‘농업’을 한다”고 말한다. 그에게 농업은 1차산업으로서 농작물 생산을 넘어 일차 생산물에 문화의 가치를 담아 부가가치를 크게 높이는 것이다. 농업·농촌에 좋은 인재를 유치하려면 그들이 도시의 직장에서 가질 수 있는 소득 수준에 비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소득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도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13여 년 동안 보롬왓을 일궈오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전체 비즈니스 활동을 100이라 할 때 일차 농산물 생산이 30을 넘으면 안 되고 나머지 70은 원물에 기반한 문화 콘텐츠로 가야 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말한다. 원 생산물을 가지고 2차 가공식품이나 생활용품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것, 관광 프로그램이나 고품질의 다이닝 서비스를 기획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물 그대로를 판매하는 것에 비할 수 없는 큰 부가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보롬왓은 제주산 메밀을 사용해 고품질의 국수를 개발하는 등 메밀을 소재로 한 다양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을 개발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판매한다. 보롬왓 야외 공간에서 실내의 온실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선 끝에 다다른 보롬왓 카페에서는 커피 종류 외에도 직접 생산한 메밀로 만든 음료(메밀차, 메밀라테 등)와 디저트(메밀 크로와상 등),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들도 전시·판매하고 있다.

보롬왓 전경



## 🌱 공유 시스템에 기반한 ‘같이의 가치’ 농업 추구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반적으로 6차산업화, 융복합화를 이야기하지만, 이 대표가 추구하는 방식은 조금 다르다. 그는 6차산업화가 필요하지만 개인 또는 개별 농가를 넘어 보다 큰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6차산업화가 현실에서 유효하다고 말한다. 6차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생산, 제조·가공, 판매·유통, 상품·서비스의 기획·운영 등의 활동은 그 각각의 영역에서 시장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점점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고품질의 서비스와 상품 퀄리티를 요구하는 시장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수준의 6차산업화를 개별 주체가 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고가의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인이 감당해야 할 리스크는 더 높아지며, 투자만큼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빚으로 전략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에서 실제 작동할 수 있는 6차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주체를 넘어선 단위의 공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내 공유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주체들 간의 파트너십 구조 속에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분업화·전문화해야 하는 것이다.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한 가지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서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며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운전해 농약 치는 기술을 가진 청년이 있다면 지역 농가들에게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것만으로 농촌살이가 가능해야 한다. 단일 주체가 6차산업화를 위한 수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분업화·전문화된 비즈니스들이 연계·통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그 과정에서 각자의 전문성이 더욱 고도화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6차산업의 영역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표는 생산은 생산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이, 제조는 제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하고, 이들이 ‘같이’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여 결과를 나누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같이’를 통해 가치를 높이고, 높아진 가치를 나누는 방식이 ‘같이의 가치’ 농업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개별 소유가 아닌 ‘공유’에 기반한 6차산업화 시스템이라고 강조한다.

## ☺ 앞으로의 도전: 비즈니스의 확장, 사람의 확장

보름왓에서는 농업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인 비즈니스 활동 영역을 더욱 확장하여 최근 ‘스테이 느룻’을 오픈했다. 스테이 느룻은 이 대표와 조합원들이 오랫동안 가꾸어온 메밀밭과 인근의 삼나무숲 등 보름왓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정취를 십분 활용한 숙박 서비스이다. 중정과 옥상정원, 마주한 보름왓에서 제주도의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기획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일차 생산물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조식 서비스와 다이닝서비스(준비 중)를 제공한다. 앞으로 문화예술 공연, 작가 강연 등과 같은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어 문화와의 접목을 통해 농업을 베이스로 하는 보름왓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보름왓을 만들고 십 수년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군분투하며 더 나은 6차산업 서비스를 고민하고 기획·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농업의 영역에서도 최고 수준의 스테이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보름왓에 오픈한 숙박 서비스 ‘스테이 느룻’



농업과 문화의 만남이 보롬왓의 서비스를 확장하고 가치를 높였다면, 농업과 교육의 만남을 통해 보롬왓과 지역사회를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가려고 한다. 2024년 봄에 오픈을 목표로 현재 농업학교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의 철학처럼 농사짓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강조하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키워가는 학교,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농업에서 배우는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를 위해 건강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학교를 구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제주도가 국내의 메밀 최대 생산지인데<sup>3)</sup> 메밀 수확이 예전만큼 되지 않는다고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기후 위기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해외 상황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 13여 년의 시간 동안 이종인 대표를 비롯한 보롬왓의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돌밭에서 전에 없던 농업의 길을 개척해온 것처럼 앞으로의 보롬왓도 지속가능한 농업의 새 비전을 꿈꾸고 키워갈 것이다.

3) 전국 메밀 유통량의 60%가 제주산 메밀이다.

- >> **01 농번기 아이돌봄방**  
: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02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제주 위대한백수
- 03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 제천 덕산누리마을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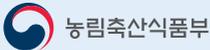
V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우수사례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 사례집

## V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우수사례

# 농번기 아이돌봄방



### ✓ 정책 내용

주말 동안 마음 편히 자녀를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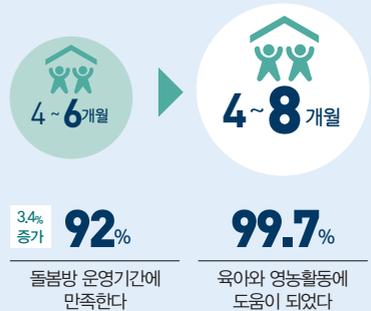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토록 지원

- 돌봄시설이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 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운영하여 일·가정 양립지원 및 농촌 돌봄사각지대 해소

### ✓ 2022년 주요 실적

지역별 영농특성(노지작물, 시설작물, 작물 종류 및 재배시기 등)에 따라 돌봄방 운영기간 확대하여 돌봄방 운영

- (기존) 4~6개월 → (확대) 4~8개월
-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 '돌봄방 운영기간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92% (920명)로 작년 대비 3.4% 증가
- '육아와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자가 99.7%(997명)로 농업인 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주말 농번기 아이돌봄방 대상 연령을 영유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원 단가 증액을 통한 돌봄 기능 강화

- 대상 연령: (기존) 만 2세~만 5세 → (확대) 만 2세~초등학교 2학년
- 지원 단가: (기존) 급간식비 1인당 4천 원 / 교재교구비 50만 원 → (확대) 5천 원/70만 원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농업인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 소재지**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길 4-9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함마대로 825-2
- 단체명** 계룡시다함께돌봄센터, 함안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 주요내용** 사업 지정 기관에서 농번기 주말에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인 부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키워드** 아동돌봄, 농업인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정책적 고민 중 하나는 ‘아이 낳지 않는 사회’라는 점이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1위 이스라엘이 2.9명, 꼴찌에서 우리 다음(37위)인 스페인이 1.24명이라는 점을 볼 때 이제는 출산율이 ‘낮다’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심각하다. 같은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3년부터 지난 10년간 전국적으로 1.19명에서 0.78명으로 0.41명 줄어들었는데, 군 지역을 별도로 살펴보면 1.43명에서 0.98명으로 0.45명 줄었다. 군 지역을 농어촌 지역이라고 판단한다면, 전체 추세와 마찬가지로 농어촌 지역에서의 출산율 감소 흐름도 심각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내놓고 있다. 그중 하나는 자녀 돌봄에 대한 부모의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보육 여건 개선의 일환으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말 아이돌봄방이라고도 불리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은 주말에도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 부모가 보육 시간에 할애해야 할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어 호응을 얻고 있다. 2014년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이 사업은 2022년 기준 전국 농어촌 지역 74개소에서 운영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희망재단을 통해 지역의 보육 시설을 지정하여 주중 정규 돌봄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주말에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소당 시설비 최대 20백만 원, 간식비와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최대 27백만 원을 지원한다.

본고에서는 계룡시와 함안군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글로 옮겨적었다. 두 지역에서는 각자 어떤 방식으로 농번기 아이돌봄방이 운영되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 아이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룡시 다함께돌봄센터

계룡시의 다함께돌봄센터는 2021년을 시작으로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3년째 운영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역사회

기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전국 700여 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계룡시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미 2010년부터 '도원 울타리 지역아동센터'라는 취약계층 아동 돌봄 운영을 해오고 있었다. 여기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지정되면서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일반 아이들까지 받고, 이어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통해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였다.

계룡시는 도농복합시로 분류되지만 엄연히 농촌이 안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다함께돌봄센터에서는 이야기한다. 2023년 8월 기준 인구가 약 4만 5천 명으로, 충남 소재 인근 지역인 공주시 10만, 논산시 11만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평균, 충남 지역 평균에 비해 낮지만, 계룡시에는 국군 군사기지 중 하나인 계룡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인구가 많지 않고, 농사짓는 가구의 수도 많다. 주로 지역에서는 벼농사를 짓는 가구가 많은데, 모내기과 수확이 한창인 농번기에는 줄곧 바쁘기때문에 주말에 자녀를 돌봐줄 곳이 절실하다. 4월에서 11월 사이 중 6개월 동안 운영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들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평일에는 직장에 다니고, 주말에는 조부모의 일손을 돕느라 가정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어 아이돌봄방을 찾는 부모도 적지 않다고 한다.

계룡시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운영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특징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시켜줄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하승일 센터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도시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기회가 적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농어촌 지역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다 풀 좋아하고 그런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당연히 여겨지는게, 여기서는 부족한 게 있거든요. ... 얼마 전에는 애들을 대전에 있는 아이스링크에 데려갔어요. 뭘 배우려고 간게 아니고, 여름에도 이렇게 얼음바닥에서 타는게 있다, 그걸 한번 아이들이 느껴보는 거예요. ... 그러니까 시골에선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는게 중요하더라고요."

- 하승일 센터장 인터뷰 중 -

과학상자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면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도 하고, 태블릿PC를 구비하여 그림을 그려보게 하거나 코딩을 해보도록 하기도 했다. 프로그램마

다 대전에서 선생님을 초빙하기도 하지만, 전문적인 교육이 아니라 어디까지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계룡시 다함께돌봄센터의 내부에는 아이들이 완성한 교량 모형 등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전경



아이들이 만든 교량 모형

하지만 이곳의 더욱 큰 특징은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 경험을 위해 한 해 중 긴 호흡으로 구성된 메인 프로그램에 있다. 계룡시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하는 농번기 아이돌봄방의 한 해 동안의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중장기적인 흐름의 메인 프로그램 사이사이로 극장, 놀이동산, 야외 소풍 등 단발적인 일정이 치러지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일반적으로 요일마다 프로그램이 시간표에 맞춰 구성되는 주중 돌봄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올해는 자연사 박물관 방문과 음악 교실 2가지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센터에서 20분 거리인 한국자연사박물관과 협약을 맺고 관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약 20회로 구성하여 아이들과 견학하는 것이다. 또한 목원대학교 음악교육과 학생들을 강사로 초빙하여 아이들에 체험형 음악 교육을 제공한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수준 높은 음악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강사 역할을 맡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의 전공을 살려 교육 실습을 하는 기회가 되는 호혜성을 띠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 바탕에는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오랜 기간 단단하게 쌓아온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와 경험, 또한 지역 언론사의 명예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하 센터장의 열정적인 노력이 있다. 한 해동안 주말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설, 모실 수 있는 강사 등을 섭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기존 시설을 같이 운영해온 선생님들

을 통한 네트워크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발하게 홍보를 했던 것이 빛을 발해,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강사를 모셔오기도 한다. 목원대에서 음악 선생님을 모셔와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같이, 대전이라는 도시가 가까이 있는 것이 이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다. 이렇게 주말 돌봄 프로그램을 흥미롭고 짜임새 있게 구성한 덕분에 첫 해에 70% 안팎이던 아동 출석률은 이듬해 수영 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90% 이상이 되어 현재까지 아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물론 도시에 뒤처지지 않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경험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여 농촌 지역의 여건과 이를 활용한 활동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인근의 공원과 숲속은 언제나 아이들을 반기는 품이 되어주고, 동네 어른신이 때때로 빌려주시는 텃밭에서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고구마나 감자를 캐고 직접 요리해 먹으며 농사의 즐거움을 배우기도 한다. 도시와 농촌의 중간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계룡에서의 이와 같은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방식은 단순히 부모의 입장에서 주말에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안목을 넓게, 동시에 심성은 맑게 해주는 이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쿠킹클래스



Book & Flower 수업



자연사박물관 체험

## 🌱 **편한 가족처럼 오랜 기간 아이들을 돌보는 함안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함안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는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이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쭉 운영해온 가장 오래된 시설 중 하나다. 공점숙 센터장은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의 부속 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농업인에게는 주말에도 아이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일찍 깨닫고 주말 아이돌봄방을 시작했다. 그녀 스스로가 한 사람의 농업인이자 어머니이기에 농사짓는 부모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주말 돌봄의 필요성을 절감했던 것이다.

함안군은 동쪽으로 창원시와 김해시, 서쪽으로 진주시가 인접하여 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지만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다. 돼지와 한우 농가, 하우스 작물 농가의 비율이 높아 농번기와 농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있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은 1년 내내 바쁘다. 농업 인구가 많고 외국인 주민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다. 센터가 소재한 군북면의 인구가 2021년 기준 약 6,700명인데 그 중 외국인은 700명이 넘으니 10%를 넘는 것이다. 대부분 태국, 베트남 출신인 이주민들은 전업으로, 또는 겸업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곳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고 공 센터장은 설명한다.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지만, 농번기 아이돌봄방까지 더해 현재까지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에 힘을 쏟으리라고는 처음부터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녀의 솔직한 소감이다.

"처음에는 그냥 돌봐준다고 했는데, 아이들도 주말만이라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 내가 처음에는 어린이집을 할 거라고 꿈도 안 꿰던 사람입니다. ... 엄마들 마음을 읽고 내가 농업인으로 살면서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걸 조금 도와주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더라, 알기 때문에..."

- 공점숙 센터장 인터뷰 중 -

이곳의 돌봄방은 일상적으로 아이들이 하고 싶은 활동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농사일이 바쁜 엄마, 아빠와 주말에도 떨어져 오게된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집처럼 편안한

곳이 되어주는 것을 운영 목표로 한다. 주중 어린이집에서는 학습 프로그램과 공부방 같은 일정이 체계적으로 짜여있는 만큼, 주말에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으로 시설비는 특별하게 지원받지 않았지만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의 부속시설인 강당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너른 마당이 있다는 점은 최적의 조건이었다.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들어와 대문을 열고 센터로 들어오면 마당을 가로질러 건너편에 어린이집 건물과는 별도로 센터 사무실과 강당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은 주간에는 아이들이 체육관 삼아 뛰놀거나 신체 활동, 영화 감상 등을 하고 야간에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다목적 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멀리 바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아이들은 평상시에도 마당에서 뛰놀거나 자전거를 타고 논다.



실내 활동



마당 활동

현재 12명 내외의 아동이 농번기 아이돌봄방 이용을 위해 주말에 등원하고 있다. 아침 7시 50분부터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해 동네 곳곳의 아이들 가정을 다니며 등원시키는 것으로 돌봄방의 일과를 시작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주말 돌봄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짜여있다고기보다는 날마다 아이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따라가는 편이다. 돌봄방은 센터장과 사무장, 그리고 두 명의 선생님과 한 명의 조리사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다음에 어디 가보고 싶어?"와 같은 질문을 건네곤 한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언제든지 인근 공원으로 소풍이나 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때로는 멀지 않은 진주나 사천으로 건너가 놀이공원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데려가기도 한다.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간 아이들이 신이 나서 눈을 반짝거리며 오늘은 어디를 다녀왔는데 정말 재밌었다고, 이야기를 쏟아낼 때마다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의 돌봄방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공 센터장은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떠올렸다.

"즉흥적으로 한 적도 많이 있어요. 아이들하고 사천에 자연휴양림에 산책을 갔는데 위에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는 케이블카 타자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 공점숙 센터장 인터뷰 중 -

아이들에겐 케이블카를 탔던 그 날이 가장 신났던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던 시기에는 돌봄방을 운영하며 웃지 못할 추억이 생기기도 했다. 초기에는 야외 활동에 조심스러워 센터 내 활동만으로 제한하여 어려움이 있었지만, 언젠가 공원에 나가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없어 넓은 공간이 아이들 독차지가 되어 신나게 뛰어다니곤 했다는 것이다.

"코로나 때는 좀 더 힘들었어요. ... 근데 또 한 가지 좋은게 있었잖아. 공원같은 데 나가면 다른 사람들이 만나오니까 우리 애들만 있고 아무도 없는거예요. 우리 애들만 거기서 신나게 노는거예요. 그런 때도 있었다, 참."

- 공점숙 센터장 인터뷰 중 -

### 야외 활동



처음 아이돌봄방을 운영할 때 센터에서 주안점을 두고 노력했던 바와 같이, 이곳에서는 서로 가족적인 편안함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주중 어린이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들을

연령별로 분반하여 운영하고, 주말 아이돌봄방의 경우에도 연령별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이곳에서는 통합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이들은 연령에 관계없이 한데 어우러져 놀면서 더욱 친밀해지고, 자연스럽게 사회성을 기르게 된다. 저연령대의 아동은 형과 누나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따라하고, 또 상대적으로 순위 연령대인 7, 8세의 아이들은 동생들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법을 배운다.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도 이곳에서는 다같이 친구다. 가족적인 사랑을 주고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선생님들과 센터장도 잘 따른다. 초창기에 센터장이 아닌 소장으로 불리던 시절에는 아이들이 '소장 엄마, 소장 엄마'하고 따라다녔다고 한다.

공 센터장은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업무와 더불어 아이돌봄을 함께 운영하며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면서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특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채워지지 않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들을 편안하게 보듬어온 것이 어찌면 함안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가 10여 년의 오랜 기간동안 꾸준히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 것이다.



## V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우수사례

#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 ✓ 정책 내용

주민주도의 문화공동체 활동 확산을 통해 지역관계망 형성, 지역 주민의 문화·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에게 일상생활 속 생활 문화 활동 참여 및 향유기회 제공

\* 2024년까지 매년 40개소 지원(역량강화 워크숍 및 현장컨설팅 및 모니터링 등)

### ✓ 2022년 주요 실적

#### 생활문화공동체 선정 마을 개소수 확대

- 60개소 지원으로 사업 대상 확대

#### 사업 특성화 모델 구축 개선방안 제시를 통한 목표 및 내용에 따른 공동체 유형 구분

- 공동체 활동의 단계별(형성→성장→지속→지역연계) 구분 → 공동체 목표 및 내용에 따른 구분(관계 형성, 관심 확장, 관계 활성화)

#### 공동체 생활권 범위 확대

- 기존 마을골목 중심 → 읍면동 단위로 확대



## 제주 위대한백수

# 가파도의 문화를 기록하고 주민공동체를 그려가는 제주 위대한백수

-  **소재지**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  **단체명** 위대한백수
-  **주요내용** 청년 이주민들이 모여 주민들과 함께 가파도의 문화를 마을 지도 및 안내 영상으로 기록함으로써 주민공동체와 마을 내 공동체문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 진행
-  **키워드** 주민공동체, 생활문화공동체



우리나라 농촌 마을 공동체는 급속한 근대화를 겪고부터 그 기능이 약해졌다. 특히 농촌 지역사회 내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가 시설 및 자원이 부족함에 따라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줄어들었다. 농촌 주민들은 농촌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 활동이 촉진될 때 농촌의 지역공동체가 복원 및 활성화되고, 미래세대에 대한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배경에서 농어촌 정책도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건강한 생활문화 형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04년에 시작한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2009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되어 2023년까지 15년간 진행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총 60개 단체 및 마을에 지원하였고,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음악, 미술, 체육 등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과 축제, 마을 경관 개선 등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산가능한 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모임의 장으로서 마을회의 및 모임을 주최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본 고에서는 제주 가파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대한 백수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제주도의 부속섬 중 4번째로 큰 섬인 가파도는 아름다운 청보리 물결과 유채꽃으로 가득한 관광 명소로 사랑받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는 다양한 갈등도 존재했다고 한다. 약 70가구와 주민 10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인 가파도의 원주민과 이주민 간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 내 공동체문화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위대한백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 가파도의 손주가 된 위대한백수

위대한백수는 서울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던 4인이 모여 가파도에 들어간 청년 공동체이다. 위대한백수로 불리는 이유는 네 명의 청년들이 가파도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파도에 정착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사업이나 비전을 꿈꾸었다기보다 이주하여 살고 싶은 지역을 6개월 동안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 김광선·유은영·허주녕(2017), 농촌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여가정책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여러 지역 중 가파도만의 풍경과 주민들 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및 공감대 형성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좋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서울과 같은 도심은 생활 인프라와 문화콘텐츠가 다양하여 청년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임엔 분명하지만, 이들이 몰입하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끊임없는 경쟁구조가 형성된 사회이기 때문에 위대한백수 청년들은 비교적 기회가 많은 농촌지역을 주목하게 되었다.

위대한백수는 2020년 11월에 가파도로 입도하였다. 당시에는 곽상훈 대표와 차성진, 신현정 3명의 청년이 가파도에 처음 들어와 살고 있었다(심나희 2022년 합류). 이들은 가파도에 어떠한 연구도 없었기 때문에 거처를 구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가파도의 '삼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가파도에서는 나이가 지긋하신 분을 모두 삼촌이라 부르는데, 삼촌 중 한 분이 집을 공짜로 내어주시면서 가파도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 위대한백수



가파도 생활을 시작하기 전엔 청년이 모이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가파도에 들어와 생활하면서, 청년들보다는 마을 어르신들과 건강하게 교류하는 것이 먼저이고 마을을 위한 기획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당시 마을에 파벌이 존재하고 주민들간 서로 인사도 나누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가파도 생활 초기에 했던 일은 거창한 '문화 기획'이 아닌 어르신들의 심부름과 마을의 잡다한

일들을 도와드리며 청년들이 힘을 써야 하는 일들에 대한 노동이었다. 더불어 계획서와 같은 문서 작성이나 디자인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용돈벌이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로 낯설고 데면데면했던 분위기였지만, 꾸준히 어르신들께 웃으며 인사하고 안부를 물으며 주시는 음식을 잘 먹고 소통함으로써 마을 공동체에 잘 녹아들 수 있었다. 가파도 생활 3년이 지난 지금은 마을 주민 모두가 이들에게 대소사를 이야기해줄 정도로, 마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이렇게 위대한백수는 가파도의 사랑받는 ‘손주’가 되었다.

### 가파도의 손주 위대한백수



## 가파도의 문화를 기록함으로써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다

지역의 문화가 후대에 계속 전승되고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문화가 기록되어야 한다. 가파도에는 이러한 기록 문화가 많지 않았다. 서울에서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면서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협업했던 경험이 있던 위대한백수는 지역문화진흥원 지원 사업에 대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고,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주목하였다. 위대한 백수는 가파도가 문화 아카이빙(archiving)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처해있고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2022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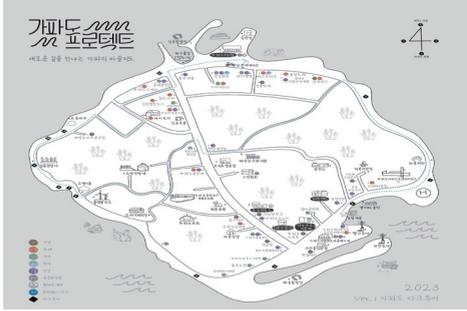
위대한백수가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가파도에서 진행한 주요 활동은 ‘가파

리 마을 지도 만들기'와 '가파리 마을 탐방 안내 영상'이다. 가파리 마을 지도는 단순한 관광 지도가 아니라 마을 곳곳에 펼쳐져 있는 진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지도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제주 4·3사건과 현대에 오면서 겪은 가파도의 변화 등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지도에 담았다. 마을 지도는 위대한백수가 운영하는 '바다보리' 로컬 브랜드숍의 방문객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통한 가파도 프로젝트 캠페인의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로컬 브랜드숍에 3개월 동안 6번 이상 방문했던 사례가 있을 만큼, 실제로 마을 지도는 방문객들에게 가파도를 한 번 더 방문하고 싶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위대한백수는 가파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마을 주민들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파리 마을 탐방 안내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가파도 정기 여행선사에서 제작했던 가파도 안내 영상이 있었지만, '마을'이 보이는 영상이 아니라 '관광지'로써의 가파도밖에 보이지 않는 아쉬움이 있었다. 여행선을 타고 입도하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눈에는 가파도가 마을이 아닌 관광지 중 하나로 비추어졌고, 마을 주민들과 관광객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이 빈번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대한백수는 마을 주민들이 전면에 나와 가파도를 이용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을 퀴즈 형식으로 유쾌하게 풀어낸 안내 영상을 기획·제작하였고, 이를 마을 지도에 삽입하여 소개하고 있다.

마을 지도 만들기와 안내 영상 만들기는 모두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 이루어진 활동이다. 특히 마을 지도의 경우 주민들도 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발굴하면서 이를 다시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마을의 문화와 이야기들을 알아가고 가치관을 찾아감으로써 마을 공동체에 생기가 돌아났다고 한다. 위대한백수가 가파도에 들어와서 마을을 위해 도와드리면서 어르신들이 많이 예뻐해 주시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향한 걱정도 많으셨다고 한다. 위대한백수가 창업진흥원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을 통해 로컬 브랜드숍을 운영하게 되자 마을 주민들에게 결국 '장사하는 청년들'로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시도하자 위대한백수를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한다. 위대한백수 말고는 가파도라는 섬을 브랜드링하고 마을 공동체를 위한 활동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지만,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분명 가

파도의 성장을 위한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 가파리 마을 지도



### 가파리 마을 탐방 안내 영상



## 가파도를 향한 위대한백수의 위대한 비전

위대한백수는 언제나 주민들의 삶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2022년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통해 일구어둔 공동체의 자본을 바탕으로, 2023년 현재 카카오의 사회공헌 사업인 제주임팩트챌린지<sup>2)</sup>를 통해 가파도 사진집(포토에세이)을 제작하고 있다. 관광객의 시선이 아닌 마을 주민들의 시선으로 본 가파도의 모습을 사

2) 제주의 지역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진으로 기록하여 포토에세이를 발간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가파도를 경험하여 사랑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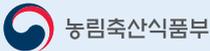
### 가파도 포토에세이



위대한백수는 이제 가파도라는 지역을 넘어 제주도까지 비전을 넓히고 있다. 위대한백수가 가파도에서 나고 자란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가파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한계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제주도와 가파도 사이의 다리를 잘 놓을 수 있을까, 가파도와 제주도 그리고 '육지'라고 부르는 타지역과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위대한백수는 가파도가 단순히 섬이 더 넓은 세상으로 통하는 '플랫폼'으로 그려가고자 한다. 아직은 어떠한 형태의 플랫폼으로 기획하면 좋을지 마을의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비전을 두며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위대한백수 청년들처럼 다양한 도전과 고민을 나누는 사람들이 가파도로 모여들 수 있도록, 가파도를 향한 위대한백수의 위대한 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 V 2022년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우수사례

# 귀농·귀촌인 창업 주거지원



### ✓ 정책 내용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창업·정착 지원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제공·상담·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임시주거 지원 등 체계적인 사전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 ✓ 2022년 주요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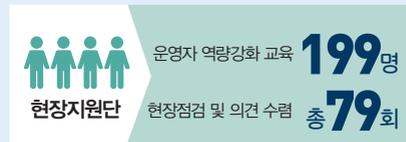
‘농촌에서 살아보기’ 운영 규모를 확대(104개 마을 → 119)하고, 테마별 특화마을 도입 등 목적성을 강화하여 사업성과 향상

- 총 25곳 : 재배품목 장기실습형(9곳), 농촌유학연계형(2), 사회적경제형(4), 창업연계형(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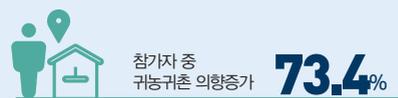


2021년부터 운영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현장지원단’ 구성·운영

- 현장지원단(농정원·전문기관) : 운영자 역량강화 교육 (7개 권역 199명), 현장점검 및 의견 수렴 총 79회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참가자의 73.4%가 귀농·귀촌 의향이 증가하였다고 응답





### 제천 덕산누리마을

# 실패해도 괜찮아! 귀농·귀촌을 꿈꾸는 이들의 자아실현을 돕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 소재지** 충북 제천시 덕산면 월악산로 451
- 단체명** 제천 덕산누리마을
- 주요내용** 청년을 비롯한 도시민에게 농촌에서 거주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생활해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귀농·귀촌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
- 키워드** 귀농귀촌, 청년, 창업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이 맞닥뜨린 소멸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청년인구의 유치가 제시되고 있다. 그 배경은 농촌의 인구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극심하게 고령화되었다는 데 있다. 2022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세부터 39세 사이 인구 중 84.8%가 도시 지역에 몰려있으며 읍·면 지역에는 15.2%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중위 연령과 평균 연령 역시 도시 지역, 그리고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청년이 농촌에 정착하게 함으로써 지역 소멸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부터 추진되어온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명칭 그대로 귀농·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이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가하는 도시민에게는 3~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공간과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에 더해 월 30만 원의 연수비가 지원되며,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첫 해엔 104개 농촌 마을에 도시민 649가구, 이듬해인 2022년엔 119개 마을에 도시민 842가구가 참여하여 각각 73가구, 106가구가 실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하였다. 커다란 수치는 아니지만 실제로 도시민이 농촌 지역에 유입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운영 사항

(단위: 개)

구분	합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마을	119	1	8	16	13	14	27	21	17	2
귀농형	36	1	4	5	4	6	6	7	3	-
귀촌형	76	-	4	9	8	7	19	14	14	1
프로젝트 참여형	7	-	-	2	1	1	2	-	-	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2. 11. 23.)

충북 제천시 덕산면은 인구수 2,200명이 채 되지 않는 농촌 지역이다.<sup>1)</sup> 남쪽으로 월악산, 북쪽으로 충주호를 끼고 있고 제천시내로 가기 위해서는 충주호를 가로질러 차로 50분가량 가야 하는데, 이처럼 깊은 내륙지역에 입지한 덕산면의 덕산누리마을에서 운영되었던 농촌에서 살아가기의 사례가 2022년 진행된 사업 중 우수사례로 제시되었다. 귀농·귀촌형, 프로젝트형으로 구분하여 추진된 본 사업에서 프로젝트형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실제로 덕산누리마을에서는 농촌에서 살아가기 사업 외에도 '청년 정착 플랫폼'을 표방하며 다양한 자체 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청년들의 정착이 이어지고 있었다. 과연 어떤 이들이 찾아와 지역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며 성공사례로 떠오를 수 있었는지, 덕산누리마을로 직접 찾아가보았다.

## 청년 정착 프로그램의 태동, 농촌공동체연구소에서 청년마을로

현재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덕산누리마을 청년 정착 프로그램은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의 한석주 대표가 지난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울인 다양한 실험적 노력 끝에 얻은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한 대표가 덕산면에 정착한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사 출신인 그는 교육을 통해서 마을과 주민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덕산면에서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교사로 활동하다 2007년 간디교육연구소를 창립하였다. 이후 2011년에 설립한 사단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리고 당시 20가구가 넘는 다문화가정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누리마을 빵카페'를 설립하였다.<sup>2)</sup>

하지만 그의 고민은 여전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사람이 하나둘 지역을 떠나면서 점점 지역의 기반을 이루는 서비스가 부족해지고, 그것이 다시 또다른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는 위기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사람, 특히 젊은 청년들이 지역으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더욱이 201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도시에서 극대화된 자본주의의 이면에 염증

1) 2022년 제천시 통계연보에서 발췌한 2021년도 기준 수치이다.

2) 당시 농촌공동체연구소가 시도한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상세한 내용은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간한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우수 사례 10선』에 수록한 바 있다.

을 느낀 청년들이 헬조선, 3포 세대, 5포 세대 등과 같은 신조어에 공감하던 시기였다. 한 대표는 농촌이 이같은 청년들에게 대안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한편, 농촌에 유입된 새로운 구성원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공급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새로이 농촌으로 찾아온 청년과 기존의 마을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고자 2019년 농업회사법인 (주)청년마을을 설립했다.

청년마을 설립 이후 초기에는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농촌공동체연구소에서 운영하던 사회적농업 거점농장의 기능을 물려받아 청년들이 사회적농업에 참여하는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였지만, 점차 도시 청년을 이끌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했다. 자체적으로 살아보기나 체험 프로그램을 구상해보고 시도해보기도 했지만, 초창기에는 새로 유입된 청년들이 지역 문화와 적응도 힘들고, 무엇보다 농촌인 이곳에서도 청년의 입장에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하기에 기반이 마땅치 않아 막막함을 안긴다는 점이 숙제였다. 그러다가 하나의 돌파구로 만나게 된 것이 2021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다.

#### 청년마을 사무소 및 숙소



### 🌿 농촌에서 살아보기, 덕산누리마을 주민들과 함께 살아보기

덕산누리마을은 2021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 104개 마을 중 한 곳으로 선정되었다. 덕산누리마을 청년 정착 프로젝트 중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이곳에서 현재까지 3년째 운영 중이다. 귀농형·귀촌형·프로젝트참여형 등 세 가

지 유형의 사업 형태 중 덕산누리마을에서 진행된 것은 프로젝트참여형에 해당한다. 프로젝트참여형 사업의 특징은 다른 두 유형과 다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유형**

- 귀농형 : 지역 주요 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 (일반, 특화: 재배품목 장기실습형)
- 귀촌형 :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 (일반, 특화: 중심지 거주형, 농촌유학 연계형)
- 프로젝트참여형 : 청년들에게 다양한 농촌 일자리,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단기 프로젝트를 기획, 참여기회 제공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2. 2. 22.)

관건은 도시 청년들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였다. 덕산누리마을은 첫해의 프로젝트 방향을 ‘농촌 문화기획자 되어보기’로 잡았다. ‘그린대로(舊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살아보기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의 신청을 받아 첫해에 네 명의 도시 청년이 덕산면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프로젝트의 방향을 미리 확인하고 신청한 청년들은 모두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이들이었다. 청년마을 사무소 인근의 펜션 4개 동이 임대되어 청년들의 보금자리인 덕산누리 1호, 2호, 3호, 4호로 조성되었다. 덕산누리마을에 자리잡은 네 명의 청년들은 5개월간 농촌살이를 경험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하는 시간을 보냈다. 덕산누리마을에서는 이들에게 지역 축제를 기획해볼 수 있도록 독려해주었고, 젊은이들의 톡톡 튀는 개성이 덧칠되어 꾸러진 ‘월악 가을 축제’는 조용한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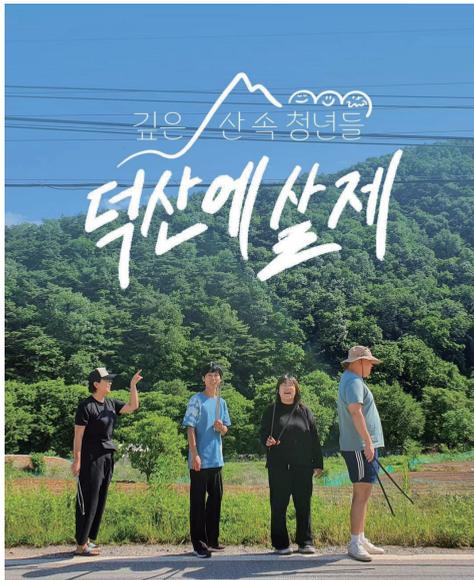
**청년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



농촌에서 살아보기 2년차인 2022년에는 조금 더 지역사회와 밀착한 프로젝트를 시도하였다. 지역 내에서 유휴시설로 남아있던 공방 시설을 빌려 마을 목공방을 운영해보는 것이었다. 첫해와 마찬가지로 새로이 네 명의 청년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팀 이름을 ‘뚝딱이들’로 짓고, 그 이름에 걸맞게 뚝뚝뚝뚝 지역사회에 필요한 목공품을 제작하였다. 특히 마을 도서관과 관공서에 책꽂이를 직접 제작·납품하여 700만원가량의 수익을 올리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하여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며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이들 중 두 명은 살아보기를 하면서 가구제작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후에도 ‘덕부네공방’이라는 자신들만의 공방을 창업하여 지역에서 소소한 목공을 제작하거나 필요로 하는 가구에 찾아가는 집 수선을 하며 덕산면에 정착하였다.

덕산누리마을에서 진행된 두 차례의 살아보기 프로그램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2021년 우수상, 2022년 최우수상에 선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2년간 참여한 8명 중 6명이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여전히 덕산면에 남아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자신들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 살아보기 프로그램 포스터



## 🌱 실패해도 괜찮아, 청년 정착 플랫폼이 그리는 오늘과 내일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는 '실패해도 괜찮'지 않은 사회가 되어버렸다. 자본의 흐름과 유행이 시시각각 변하는 사회에서 한 번의 실패는 체자리걸음이 아니라 낙으로 이어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려는 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새로이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이들이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 실패 극복 사례집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덕산누리마을에서는 도시에서의 생활 방식에 지친 청년, 여전히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농촌에서 살아보면서 지역사회와 자기 자신을 함께 돌보고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러면서도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어디까지나 농촌에 잠시 머물며 그들 스스로 가능성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성숙하고 자립된 개인이 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 ... (중략) ... 일 자리를 누군가가 주거나 월급을 주는게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한 번 실패하더라도 여기서 실패하는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넘기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한석주 대표 인터뷰 중 -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떠나는 이들에 대해서도 잠시 이들에게 휴식이 필요했거나, 농촌에서 아직 자신의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며 앞날을 응원해준다.

그렇 수 있는 이유는 덕산누리마을이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 외에도 청년 장기 귀농학교나 1달 살아보기, 자체 인턴십 프로그램 등 청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농촌을 경험해볼 수 경로를 마련해두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단지 덕산누리마을이 이야기 하는 청년 정착 플랫폼에 앞선 단계에서 유입 통로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개인에 대한 농촌 정착 유도 사업이 사업 종료 후 지원이 끝나면 다시 참여자가 도시로 떠나버리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축한 모델이기도 하다.

### 농사짓기 체험



덕산누리마을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하는 반년 남짓의 기간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마음을 정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따라서 살아보기와 같은 단기 프로그램 종료 후 조금 더 남아있고자 하는 청년에게 2년 안팎의 시간을 더 지역사회가 비빌 언덕이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청년마을 사무실 건물에 추가적인 숙소를 마련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실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유주방을 설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힘써온 한 대표가 앞장서서 진행하는 농촌 생활돌봄 공동체사업(舊 사회적농업 지역서비스공동체) 운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구축된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년들을 연결해주는 것이다. 운영위원회에는 행정복지센터, 덕산 초중학교, 방문요양센터,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사회에 자리한 주요 공공기관과 주민 단체를 망라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정서적, 문화적으로 뿌리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결국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덕산면에 들어와 자신만의 길을 모색하고 성장하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 덕산누리마을에서 구축하고 있는 청년 정착 플랫폼이다. 이 과정을 거치며 현재까지 덕산면에 정착한 청년은 18명이다.

청년 정착 플랫폼을 이끄는 한석주 대표는 도시 청년들이 농촌 주민들과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인식이 맞닿아있는 부분도 있다고, 그러한 인식을 존중할 수 있게 된다면 점점 더 많은 청년들이 농촌을 어려운 곳이 아니라고 여기고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청년들은 자기 삶은 그대로 유지하되 같이 하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우리는 공동체 속에 개인이 녹아들어서 없어지는데 청년들은 공동체도 있고 개인도 있어야 되요. 서로 공유, 공생 관계가 되어야 하는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해줄 수 있을 때 청년들이 농촌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한석주 대표 인터뷰 중 -

덕산누리마을의 농촌에서 살아보기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지역 사회를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청년이 지닌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덕산누리마을은 2023년 세 번째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년 연속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곳을 찾는 청년들이 하나 둘 늘어나 만들어 나갈 새로운 농촌 공동체의 모습이 기대된다.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최우수상 수상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우수사례집

농촌에서 만나는

행복한 삶의 이야기

㉔ 20-2023-8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집필** 권인혜, 정민주, 민경찬, 김민석, 나현수, 손경민, 유서영, 이진

**문의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 061-820-2078

**발행일** 2023. 12.

**디자인·인쇄** 크리커뮤니케이션 ☎ 02-2273-1775



농림축산식품부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 질 정책 연구 센터

ISBN 979-11-6149-646-7 93520

\* 이 책에 수록한 글과 사진의 무단 게재를 금합니다.